

文學碩士 學位論文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構造와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
-경기남부지역 民家유적을 중심으로-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金 龍 昊

2017年 6月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構造와
變遷過程에 대한 研究
-경기남부지역 民家유적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金 龍 昊

金龍昊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7年 6月

목 차

I. 머리말	1
II. 연구사	4
III. 연구대상지 유적·유구검토	6
1. 지상주거지의 개념과 구조	6
2. 유적현황	14
3. 연구대상지의 주요유적 검토	16
IV. 경기남부지역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변천	39
1. 형식분류	39
2. 형식별 공간적 분포범위	46
3. 편년 및 단계설정	49
4. 취락유형 및 성격	57
V. 맺음말	68
참고문헌	70
부 록	73
Abstract	85

<표 목차>

표 1. 연구자간의 지상식과 고상식 분류안	10
표 2. 연구대상 조선시대 지상주거지 보고현황	16
표 3.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평면형태 비교	34
표 4.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구들열 축조부재 비교	34
표 5.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면적비교	36
표 6.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해발 비교차	36
표 7. 연구대상지 주요유적 취락간 비교차 비교	37
표 8. 연구대상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형식분류	39
표 9. B3형식 평면형태	46
표 10. 연구대상지 내 유적별 형식 분포 수	47
표 11. 조선 전기 민가에 관한 사료	58
표 12. 조선 전기 반가에 관한 사료	58
표 13. 조선 중·후기 구들보급에 관한 사료	62

<도면 목차>

도면 1. 연구대상지 지상주거지 내 저장수혈(左:전기, 右:후기)	13
도면 2.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3지구) 현황	21
도면 3. 수원 호매실동 · 금곡동 유적 현황	22
도면 4. 시흥 장곡동 유적 현황	23
도면 5. 오산 지곡동 유적 현황	24
도면 6. 용인 고림동 유적 현황	25
도면 7. 용인 남사(아곡) 유적 현황	26
도면 8. 용인 중동 유적 현황	27

도면 9.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도시 경계부연결도로 내 유적 현황	28
도면 10. 평택 방축리 · 여염리 · 궁리 유적 현황	29
도면 11. 평택 옥길리 유적 현황	30
도면 12. 화성 구문천리 유적 현황	31
도면 13. 화성 남양동 유적 현황	32
도면 14. A형식 분류도	42
도면 15. B형식 분류도	44
도면 16. A형식 주요출토유물	50
도면 17. B형식 주요출토유물	51
도면 18. 경기 남부지역 B3식 공간구성 배치도(황대일·최수형 2010 수정후 삽입)	67

〈그림 목차〉

그림 1. 지상식 주거(재래가옥)의 구들구조(윤정숙, 1999 수정 후 삽입)	7
그림 2. 수혈주거의 벽체조성면	8
그림 3. 지상주거의 벽체조성면	8
그림 4. 연구대상지 지상주거의 구조 및 명칭(용인 중동 유적 1·2호 주거지 수정후 삽입) ...	12
그림 5. 경기남부지역 조선시대 지상주거지 유적분포도 및 유적명	15
그림 6. 전기와 중·후기의 평면형태 및 구들열 축조부재 비율	34
그림 7. 전기와 중·후기의 면적 및 해발 비고차 평균 비율	36
그림 8. A형식 종단면형태	40
그림 9. B형식 종단면형태	43
그림 10. 연구대상지 내 형식별 공간분포도	48
그림 11. 형식별 백자출토비율	50
그림 12. 연구대상 조선시대 지상주거지의 형식별 존속기간	52
그림 13. A형식 면적비율	54
그림 14. B형식 면적비율	56

그림 15. 수혈주거지+A형식 취락	60
그림 16. B형식 취락 1	63
그림 17. B형식 취락 2	64
그림 17. B3형식 취락	65
그림 18. 경기남부지역 조선시대 특수목적 주거	67

I. 머리말

조선시대에 촌락은 전통적 생활 공동체의 최소 단위국가와 군현의 지배 체계가 최종적으로 미치는 말단의 행정단위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양반·상민·천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이었다¹⁾. 공경대부 즉, 양반사족들의 집을 ‘제택(諸宅)’ 또는 ‘반가(班家)’로 부르고 있어, ‘관가(官家)’나 ‘공가(公家)’, ‘반가(班家)’를 제외한 일반 서민들과 천민들의 집을 ‘민가(民家)’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민가는 궁궐, 관아, 사찰, 향교등과 같은 권위적인 공공건축과 다른 사적인 건축이라 할 수 있다²⁾.

현재까지 조선시대 주거유적에 관한 고고학적 성과는 반가(기단·초석식)나 민가의 형식 중 하나인 수혈주거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³⁾. 이러한 이유는 도성 중심으로 분포하는 반가는 이를 증명할 고고학적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고 현장조사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이며, 수혈주거는 2000년대 이후 규제발굴에 따른 전면제도가 시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중세자료에 기인한다. 하지만 수혈주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규제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활상에서는 중요한 건축물로 여

1)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서울:민족문화사, pp.17-18.

2) 윤원태, 2009, 『전통민가의 주거생활사 연구』, 서울:민속원, pp.1-3.

3) 이경복·전경아, 2004, 「조선시대 움집과 그 안에 살던 사람들」, 『백산학보』 69:231-271.

박한재, 2007, 「조선시대 경기지방의 수혈주거지」, 상명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임영호·정여선, 2007,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3:122-174.

이경복, 2007, 「조선시대 움집과 온돌의 도입」, 『백산학보』 79:166-191.

오준혁, 2008,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검토」,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승규, 2011, 「충북지방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성격검토」,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황대일, 2011, 「울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一考察」,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지혜, 2013, 「조선시대 경기도지역 수혈주거지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손성진, 2013, 「조선시대 강원지역 움집유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등 이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거지는 민가의 형식인 지상주거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⁴⁾. 대규모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래에 그 면모가 드러나고 있고 기왕의 조사에서 연구자들 간에 지상주거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수혈식의 구조에서 삭평 또는 유실 등의 이유로 변화, 이해한 결과이다.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원지형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구릉 정상부나 충적지에서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지상식 주거 다수 조사되어 주목이 된다. 이에 따라 취락을 토대로 생활상을 복원하거나 주거지의 형태, 내부시설 등 구조적측면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경기 남부지역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지상식 주거의 구조적 특징과 출토유물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적 변화를 간취하거나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⁵⁾.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상식 주거는 일반 서민들과 천민들이 거주했던 민가의 범주 안에서 이해·접근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는 경기 남부의 조선시대 지상식 주거 또는 지상식 주거로 추정되는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인 주거지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되도록 양호한 유적의 유구를 선별하였는데, 총 18유적에서 보고된 167동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은 V장으로 구성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앞의 머리말에 이어지는 II장에서는 조선시대 지상주거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당시기 외 지상주거 또는 건물과 관련된 연구를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주요유적을 살펴봄으로써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주거지의 속

4) 김용호·이유진, 2014, 「경기지역 조선시대 民家の 조성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고고학』 13-1:35-67.

황대일·최수형, 2010, 「지면식 지상건물지의 공간구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8:127-154.

5) 일부 타지역의 자료도 연계하여 보충하고자 한다.

성, 위치 및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지상주거지의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IV장에서는 도출되는 속성에 따라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그와 관련된 속성으로는 공간의 활용 및 취·난방시설의 부재 등을 다루었다. 또한 형식분류를 통한 각 단계의 편년을 제시함으로써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해당시기의 단계별 취락유형과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성격에 관련하여서는 기능적인 속성을 유추하였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 논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종합하고, 경기남부지역에서 보고된 조선시대 지상 주거지의 의미에 대해 재정리함으로써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사

조선시대 지상주거지에 대한 연구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예는 거의 없고, 수혈주거를 포함한 조선시대 민가를 편년하는데 다루어지거나 시대를 달리해서 지상주거 또는 건물지에 관한 성격 및 특징을 검토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주제대상인 조선시대 지상주거 또는 건물이 언급된 연구로는 황대일·최수형⁶⁾, 김용호·이유진⁷⁾의 논고가 대표적이며 해당시기의 관련하여 사료를 집성한 김성태·이병훈⁸⁾이 있다. 이외에 선사·역사시대의 지상건물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배덕환⁹⁾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유적의 지상건물지를 고찰한 조현정¹⁰⁾의 논고도 참고 할만하다.

황대일·최수형¹¹⁾은 경상지역 특히 울산을 중심으로 조사된 조선시대 후기의 지상식 주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상식 주거는 수혈을 파지 않고 지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거지 상단부에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구가 구획되어 있거나 주변으로 저장시설, 내부에는 아궁이흔적 등이 확인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는 칸의 모양에 따라 민속자료를 통한 공간구성을 시도하였고 문헌자료를 근거로 기능과 성격을 검토하였다.

김용호·이유진¹²⁾은 民家の 범주 안에 수혈주거지와 지면식 지상주거지, 굴립주식 지상주거지로 구분하고 조성방식이 수혈식에서 지상식을 선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수혈주거가 17C에 이르러 급감하는 이유에 대

6) 황대일·최수형, 2010, 앞의 논문.

7) 김용호·이유진, 2014, 앞의 논문.

8) 김성태·이병훈, 2004, 「史料를 통한 朝鮮時代 竪穴住居址의 검토」, 『고고학』 3-2:57-70.

9) 배덕환, 2005, 「先史·古代의 地上式建物」, 『동아문화』 1:1-39.

10)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유적』, (考察).

11) 황대일·최수형 2010, 위의 논문.

12) 김용호·이유진 2014, 위의 논문.

해 구들의 보급에 따른 구조적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였다.

김성태·이병훈¹³⁾은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 주거지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土室’은 수혈주거로 인식하면서 구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고 ‘土宇’는 지상식 주거 혹은 건물지로 추정하였다.

배덕환¹⁴⁾은 지상식건물 용어의 사용 및 정의, 문헌, 민족지학적 사례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선사·역사시대 지상식 주거 또는 건물의 예를 살펴본 뒤 각 기능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조현정¹⁵⁾은 사천 이금동 유적에서 확인된 대규모 목조건물을 내부에서 검출된 흔적, 주혈의 대칭상태 등을 기준으로 지상식 건물로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지상식 주거 또는 건물에 대한 연구는 타 유구에 연계되어 편년에 사용되거나 민속자료와 결부되어 연구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시기에 편중되어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조선시대 전기 지상주거지는 근·현대의 재래가옥까지 점차 발전·계승 되었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류를 찾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변화 및 발전을 간취하기 위해서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년수립에 있어 기초 작업인 형식분류가 필수적이며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형식분류와 함께 편년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인 성격 등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상과 지상주거가 변천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3) 김성태·이병훈 2004, 앞의 논문.

14) 배덕환, 2005, 앞의 논문.

15) 조현정, 2003, 앞의 논문.

III. 연구대상지 유적 · 유구검토

이 장에서는 현재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조선시대 지상주거지가 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¹⁶⁾ 유적에서 확인된 각각의 유구들의 특성과 시기를 구분하여 상사성 및 상이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유적을 검토하기 전에 앞서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하겠다.

1. 지상주거지의 개념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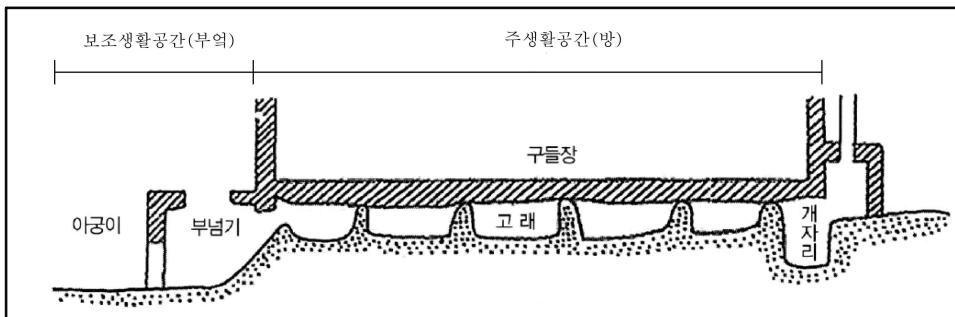
연구대상 자료의 선별은 객관성을 담보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일차적으로 지상식과 수혈식을 분류하였다. 기단·초석식으로 대표되는 반가는 내부시설이 명확함에 따라 수혈식과 지상식의 여부가 분명하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민가는 완벽하게 내부시설이 확인되는 예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확인되더라도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이에 따라 수혈식과 지상식의 여부는 검증을 통하여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였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소를 갖추어야만 지상식 주거로 간주하였다. 이차적인 분류는 등간격으로 확인되는 주혈(掘立柱) 이용한 주거에 나타나는 지상식과 고상식의 여부이다. 기존 연구자들의 분류안을 살펴보고 필자의 기준안을 제시·설정하여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상주거지와 수혈주거지의 구분

① 주생활공간의 위치

16) 주요유적의 현황은 검토대상인 조선시대 생활유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지상식과 수혈식 주거의 가장 큰 차이는 생활면에 있다. 즉 주생활공간의 위치에 따라 지상식과 수혈식을 구분할 수 있을 근거가 될 것이다. 생활면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시설이나 유물에서 찾을 수 있다. 수혈식은 대개 반지하식의 움집에서 주생활공간과 보조공간의 구분 없이 화덕¹⁷⁾ 등을 통하여 생활한다. 반면, 지상식은 내부에 구들 등의 난방시설이 설치되고 주생활공간은 지상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1>. 연소부를 담당하는 곳은 별도의 공간이 없이 함실(函室)아궁이만 노출되거나 기타 작업시설이자 보조공간이 확보되는 부뚜막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 현재 재래가옥과 유사한 형태이다. 유물의 위치 또한 생활하는 공간의 척도가 되며 주거와 상관없는 즉 후대에 쓰여온 유물과 생활면에서 사용한 유물을 토층이나 내부시설과 결부시켜 검증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 지상식 주거(재래가옥)의 구들구조(윤정숙, 1999 수정 후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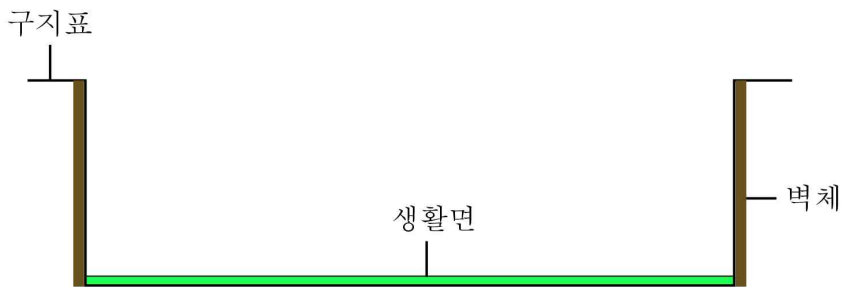
17) 이경복, 2009, 「조선시대 움집과 온돌의 도입」, 『백산학보』 79:272.

오준혁, 2008, 앞의 책, 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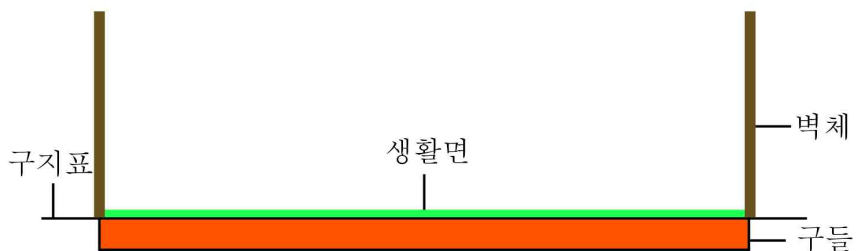
다수의 연구자들은 수혈식 주거지에 확인되는 화덕이나 구들시설을 통상적이고 적합한 취·난방 시설이라 생각하는 견해와 그 반대의 견해가 배치하고 있다. 필자는 취사와 난방에 적합한 구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지지한다. 수혈식 구조에서의 구들은 생활면의 위치가 불분명하여 열효율의 문제, 환기의 문제, 움집의 특성상 화재의 문제 등이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화덕은 단순히 조명의 기능만 수행했을 것이고, 수혈 주거 내부의 구들은 작업장이나 공방 등의 특수목적으로 단기간만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벽체가 조성되는 위치

지상식과 수혈식의 또 다른 구분근거는 벽체가 시작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수혈식은 수혈을 파는 즉시 사방벽체가 형성되지만<그림 2> 지상식은 고고자료나 문헌 등을 참고할 때 흙 또는 목재 등의 부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상주거는 벽체는 내부시설의 잔존상태나 흔적을 통해 구성했던 재료를 유추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2> 수혈주거의 벽체조성면



<그림 3> 지상주거의 벽체조성면

주생활공간의 위치나 벽체조성면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주거지도 나타나는데 특히, 구들만 잔존하거나 수혈 내 구들

이 확인되는 주거지가 그러하다. 이와 같은 예를 보고자 또는 관련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수혈식의 구조에서 삭평·유실되거나, 수혈식 주거지 내 구들이 설치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들만 확인되는 주거는 이를 구성하는 부재들과 시설의 잔존상태에 따라 수혈식과 지상식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고¹⁸⁾ 수혈 내 구들이 설치되는 예에 있어서도 구들의 종합적인 공정을 검토하여 판별하여할 요소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⁹⁾. 주거지의 입지, 삭평의 심화도, 구들의 공정을 감안하여 난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굴착하는 것인지 반지하식에서 생활하기 위해 수혈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종합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삭평 또는 유실 등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최소화되는, 정상부 또는 충적지에서 양호하게 노출된 주거와 고의적으로 폐기되어 동시성이 확보되는 주거를 중심으로 선별, 이와 비슷한 유형을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2) 지상식과 고상식 구분

일반적으로 지상식 건물은 기존의 굴립주(평지식·지면식·지상식)와 벽주식(대벽식·고상식)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발굴조사상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18) 구들만 잔존하는 경우, 수혈식 주거는 전체적으로 삭평·유실되었기 때문에 구들의 부재들도 양호하지 못할 것이며 반대로 구들을 구성했던 부재 등이 온전히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지상식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 김준봉·리신호, 2006, 『온돌 그 찬란한 구들문화』, 청흥
박근태, 2014, 『조선시대 온돌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예술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pp. 75-80.

전통 구들을 시공법을 참고하면 구들장을 마감할 때, 자갈 또는 흙 등을 이용하여 구들장 사이를 새침한 후 초벌과 중벌을 바르고 건조작업을 거친다. 이후 유기물 등을 이용하여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이 과정을 참고하면 최소 노출되는 구들장에서 20~30cm 두께의 높이가 추가되는 공정을 감안해야 한다.

정확한 명칭은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²⁰⁾. 검토대상인 조선시대 지상주거에서는 등간격의 주혈을 통해 벽체를 구성했던 굴립주가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지면에서 생활했던 지상식인지, 일정 높이를 띄워 생활했던 고상식의 검증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의견들과 필자의 구분안을 참고·비교하여 절충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작성하였다.

<표 1> 연구자간의 지상식과 고상식 분류안

연구자 \ 조건		입지	규모	생활흔적	주혈
조현정 (2003)	지상식	·	·	확인	직경이 작고 목주흔이 검출되지 않음
	고상식			확인되지 않음	주혈수가 일정하고 대칭
배덕환 (2005)	지상식	경사지	일정규모	확인	주혈 수가 많고 대칭되지 않음
	고상식	하천변 또는 범람원	소규모 (1칸 이하)	확인되지 않음	주혈수가 일정하고 대칭
황대일·최수형 (2010)	지상식	구릉지	일정규모	확인	·
	고상식	·	소규모 (측면 1칸 이하)	확인되지 않음	
김용호·이유진 (2014)	지상식	구릉지	일정규모	확인	·
	고상식	·	소규모 (면적 10㎡이하)	확인되지 않음	
필자	지상식	구릉지 또는 평탄지	·	확인	주혈수가 일정하고 대칭
	고상식	하천변 또는 범람원		확인되지 않음	·

20) 배덕환, 2005,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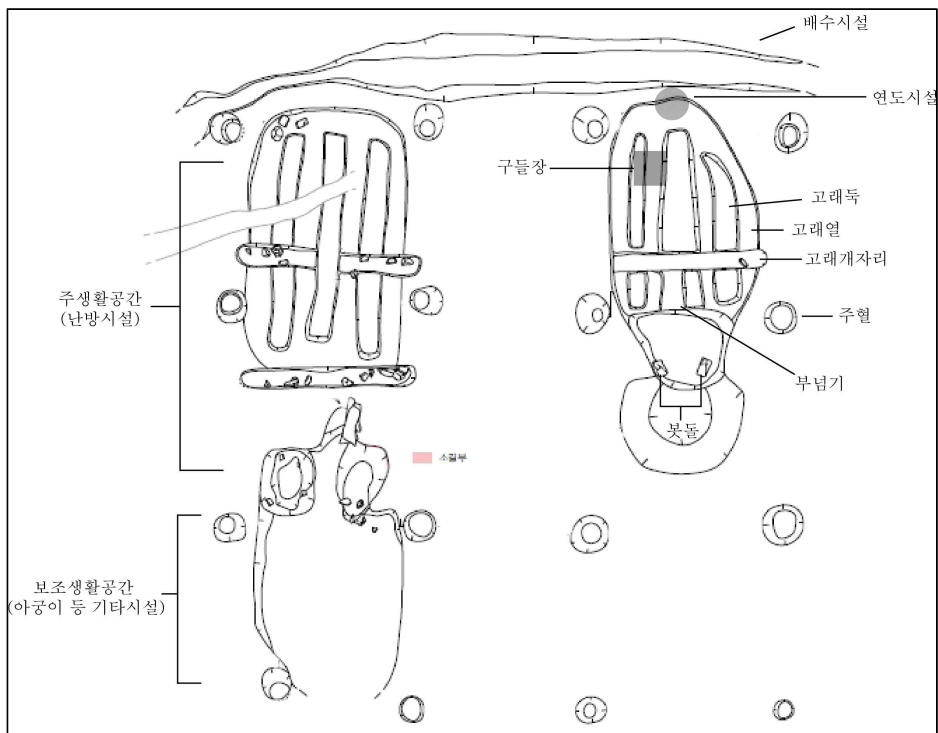
연구자들은 크게 입지나 규모, 생활흔적과 주혈의 상태에 따라 지상식과 고상식의 구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입지나 생활흔적의 검출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규모나 주혈의 상태에 관해서는 배치되는 면이 존재한다. 필자는 기존의 논고를 통해 규모가 일정크기를 갖추어야만 지상식, 작은 규모는 고상식으로 분류하였으나 오산 탐동·두곡동,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등 이후 축적된 다수의 유적에서 정면과 측면 1칸, 면적 10m² 내외에서도 생활흔적이 검출됨에 따라 현재의 구분안에서는 규모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벽체를 지지해야하기 때문에 주혈은 대칭될 수 없고 다수의 보조주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연구대상지 내조선시대 지상주거에 한해 주혈수가 일정하고 대칭되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든 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필자의 기준안은 위에서 규정하고 분류하였다<표 1>.

3) 구조 및 명칭

연구대상지 내 지상주거지의 구조는 크게 외부시설과 내부시설로 구분되며 내부시설은 사용목적에 따라 주생활공간과 보조생활공간으로 세분되기도 한다<그림 4>.

외부시설에는 배수시설과 주혈(기둥자리), 저장시설 등이 있다.

후면의 배수시설은 ‘ㄱ’자형, ‘ㄷ’자형, ‘一’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노출되는데, 조성방식에 따라 수혈식과 암거식으로 구분된다. 배수시설은 배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함과 지붕 또는 처마 등의 상부시설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주거의 후면과 매우 인접하게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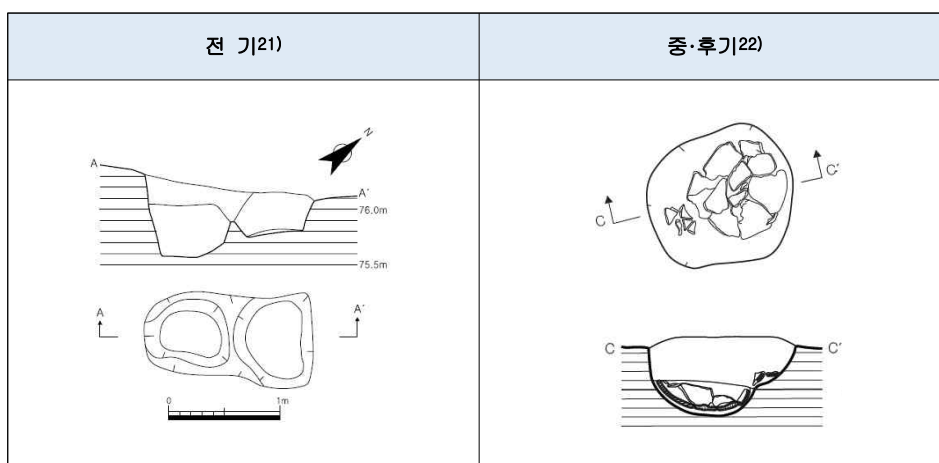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대상지 지상주거지의 구조 및 명칭(용인 중동 유적 1·2호 주거지 수정 후 삽입)

주혈은 벽체를 구성했던 재료로 일정한 규모의 칸을 유지하며 지역별로 유행한 다양한 평면 형태로 나타난다.

저장시설은 주로 전기에는 주거지 주변으로 수혈을 파는 등의 간단한 방법이 일반적이나 중·후기에 이룰수록 수혈 내부에 별도의 대형옹기를 직치하거나 소규모 고상건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도면 1>.

내부시설은 주생활공간에서 구들(독과 열)과 화기나 연기를 모아 난방효과를 증대하고 재를 가라앉히는 개자리, 외부로 연기를 연결하는 연도부 등 난방과 관련된 시설이 설치된다.

보조생활공간에서는 난방효과와 더불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뚜막과 단순히 구들장 밑으로 직접 불을 지피는 함실아궁이가 설치되고 그 외 기타작업시설이 이곳에서 행해진다.



<도면 1> 연구대상지 지상주거지 내 저장수혈

21)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남사(아곡) 유적』.

22) 서경문화재연구원, 2012, 『용인 중동 유적』.

2. 유적현황

경기남부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조선시대 지상주거는 18개소에서 167동²³⁾이 확인되었으며, 그 분포는 <그림 5>과 같다.

유적을 열거해보자면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3지구)²⁴⁾,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²⁵⁾, 시흥 장곡동 유적²⁶⁾,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²⁷⁾, 안성 칠곡리 유적²⁸⁾, 오산 갈곶동 유적²⁹⁾, 오산 지곶동 유적³⁰⁾,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³¹⁾, 용인 고림동 유적³²⁾, 용인 남사(아곡) 유적³³⁾, 용인 중동 유적³⁴⁾, 용인 완장리 유적³⁵⁾,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³⁶⁾,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유적(서경)³⁷⁾, 평택 옥길리 유적³⁸⁾, 화성 구문천리 유적³⁹⁾, 화성 남양동 유적⁴⁰⁾, 화성 향남2지구 유적⁴¹⁾ 등이 있다.

23) 전체적인 현황은 240여동이 확인되나 잔존상태가 양호한 유구만 선별하였으며 주요유적에서 서술한 조선시대 주거지는 수혈주거도 포함한 점을 미리 알려둔다.

24)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光敎 新都市 文化遺蹟 V』.

25) 京畿文化財研究院, 2011, 『水源 好梅實洞·金谷洞 遺蹟』.

26) 高麗文化財研究院, 2014, 『始興 長谷洞 遺蹟』.

27)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28) 中部考古學研究所, 2012, 『安城 七谷里 遺蹟』.

29)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烏山 葛串洞 遺蹟』.

30)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烏山 紙串洞 遺蹟』.

31) 기호문화재연구원, 2012, 『烏山 塔洞·斗谷洞 遺蹟』.

32) 서경문화재연구원, 2011, 『용인 고림동 유적』. -부록-

33)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앞의 책.

34) 서경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책.

35)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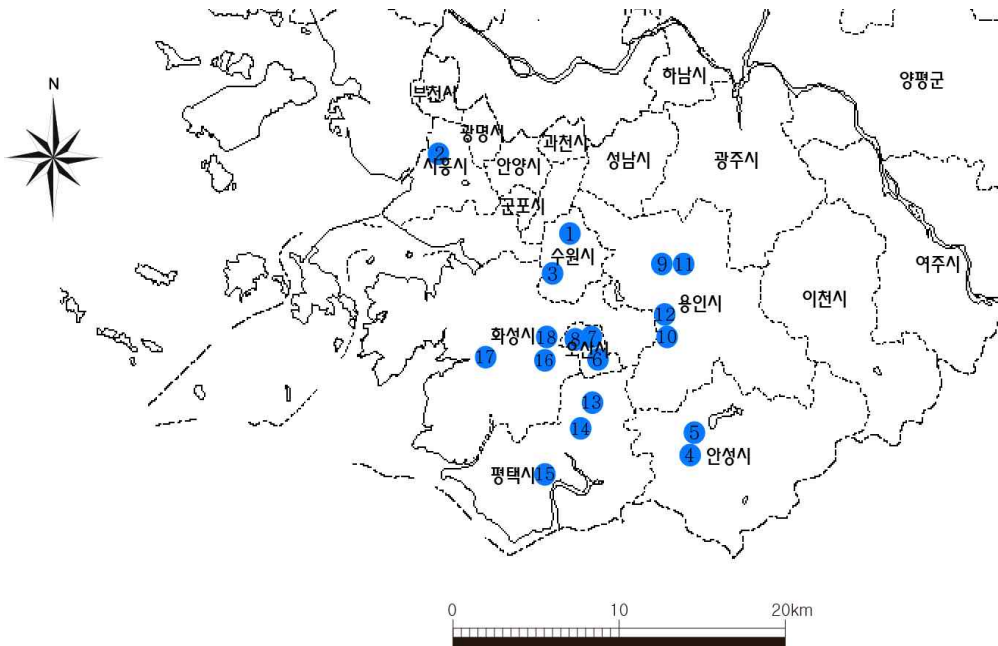
36) 중동문화재연구원, 2012, 『용인 완장리 유적』.

37)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경계부연결도로 내 유적 제10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38)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玉吉里 遺蹟』.

39)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華城 求文川里 遺蹟』.

40)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華城 南陽洞 遺蹟』.



<그림 5> 경기남부지역 조선시대 지상주거지 유적분포도 및 유적명

1.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3지구) 2.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 3. 시흥 장곡동 유적 4.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5. 안성 칠곡리 유적 6. 오산 갈곶동 유적 7. 오산 지곶동 유적 8.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 9. 용인 고림동 유적 10. 용인 남사(아곡) 유적 11. 용인 중동 유적 12. 용인 완장리 유적 13.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14.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유적(서경) 15. 평택 옥길리 유적 16. 화성 구문천리 유적 17. 화성 남양동 유적 18. 화성 향남2지구 유적

41) 中原文化財研究院, 2011, 『화성 향남2지구 유적 I』.

3. 연구대상지의 주요유적 검토

본 장에서는 경기남부지역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지상주거지의 주요속성을 <표 2>로 정리하였으며 보고서에서 추정한 시기에 따라 크게 전기(14C후반~16C후반)와 중·후기(16C후반~19C이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또한, 주요유적 내 중요한 유구와 유물 등을 검토하였다.

<표 2> 연구대상 조선시대 지상주거지 보고현황

유적명	연번	유구명	입지	평면형태	규모(cm)			면적(㎡)	부재(구들열)	출토유물	보고서 추정연대
					길이	너비	깊이				
광교신도시 문화유적 (3지구)	1	9지점 36호	구룡사면	장방형	390	233	14	9	석재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철기편	전기
	2	9지점 40호	구룡사면	장방형	225	(221)	16	-	석재	도기편, 백자편	
	3	9지점 46호	구룡사면	장방형	304	260	26	7.9	기반층	백자편	
	4	14지점 1호	구룡사면	장방형	407	260	10	10.5	석재	도기편, 백자편	
	5	11지점 5호	구룡사면	'묘'자	(255)	354	31	-	기반층	백자편, 철화백자편	중·후기
	6	11지점 6호	구룡사면	'묘'자	230	224	17	5.1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	7	5지점 9호	구룡사면	장방형	357	220	25	7.8	기반층	도기편	전기
	8	5지점 3호	구룡사면	'묘'자	345	326	39	11.2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중·후기
	9	5지점 4호	구룡사면	'묘'자	295	250	30	7.3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10	5지점 12호	구룡사면	'묘'자	494	237	64	11.7	기반층	자기편	
	11	5지점 14호	구룡사면	'묘'자	338	304	20	10.2	기반층	백자편	
시흥 장곡동 유적	12	3구역 4호	충적지	'묘'자	350	213	30	7.4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중·후기
	13	3구역 5호	충적지	'묘'자	410	340	30	13.9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14	3구역 6호	충적지	'묘'자	475	280	20	13.3	기반층	백자편	
	15	3구역 8호	충적지	'묘'자	583	235	28	13.7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16	3구역 9호	충적지	'묘'자	547	280	80	15.3	기반층	관옥	
	17	3구역 11호	충적지	'묘'자	410	240	20	9.8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18	3구역 13호	충적지	'묘'자	408	228	20	9.3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19	3구역 15호	충적지	'묘'자	410	248	28	10.1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20	3구역 16호	충적지	'묘'자	364	266	20	9.6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21	3구역 17호	충적지	'묘'자	490	250	30	12.2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상평통보	
	22	3구역 18호	충적지	'묘'자	320	240	30	7.6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23	3구역 19호	충적지	‘묘’자	490	400	40	19.6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24	3구역 22호	충적지	‘묘’자	485	333	40	16.1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25	3구역 23호	충적지	‘묘’자	440	295	15	13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26	3구역 25호	충적지	‘묘’자	316	194	15	6.1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27	3구역 26호	충적지	‘묘’자	380	280	22	10.6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28	2-나구역 10호	구릉사면	‘日’자	400	245	60	9.8	기반층	백자병	중·후기
	29	2-나구역 11호	구릉사면	‘日’자	413	228	47	9.4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철제품	
안성 칠곡리 유적	30	1-1지점 1호	구릉사면	추정 장방형	(690)	(680)	30	-	석재	도기편	전기
	31	1-1지점 12호	구릉사면	장방형	387	315	83	12.1	석재	분청사기편, 도기편	
	32	2-1지점 1호	구릉사면	추정 장방형	330	(138)	44	-	석재	도기편	
오산 갈곶동 유적	33	1지구 10호	구릉사면	‘묘’자	366	286	20	10.4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중·후기
	34	1지구 11호	구릉사면	‘묘’자	272	(122)	20	-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오산 지곶동 유적	35	1지점 32호	구릉사면	장방형	(299)	(177)	29	-	석재	기와편, 철기편	전기
	36	1지점 40호	구릉사면	장방형	319	244	89	7.7	석재	도기편, 기와편, 철기편	
	37	1지점 42호	구릉사면	장방형	(383)	211	20	-	석재	도기편, 흑유병, 기와편	
	38	1지점 44호	구릉사면	장방형	407	178	23	7.2	석재	기와편	
	39	1지점 45호	구릉사면	장방형	(622)	(146)	34	-	석재	도기편, 기와편	
	40	1지점 63호	구릉사면	장방형	(466)	301	40	-	석재	-	
	41	1지점 66호	구릉사면	장방형	(635)	(280)	39	-	석재	도기편, 백자편	
	42	1지점 67호	구릉사면	장방형	(392)	(133)	7	-	석재	승령종보	
	43	1지점 68호	구릉사면	장방형	422	167	32	7	석재	기와편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	44	13지점 12호	구릉사면	장방형	310	215	19	6.6	석재	백자편, 기와편	전기
	45	13지점 25호	구릉사면	세장방형	464	163	37	7.5	석재	-	
	46	13지점 35호	구릉사면	장방형	577	294	27	16.9	석재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철기편	
	47	13지점 50호	구릉사면	세장방형	(535)	175	53	-	기반층	백자편	
	48	13지점 53호	구릉사면	장방형	(284)	(217)	10	-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49	14지점 25호	구릉사면	세장방형	(437)	(180)	12	-	기반층	백자편	중·후기
	50	12지점 8호	구릉사면	‘日’자	414	214	20	8.8	기반층	도기편	
	51	13지점 1호	구릉사면	‘日’자	358	277	20	9.9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52	13지점 9호	구릉사면	‘日’자	520	291	41	15.1	기반층	-	
	53	13지점 10호	구릉사면	‘日’자	(301)	135	39	-	기반층	-	
	54	13지점 17호	구릉사면	‘日’자	(404)	(302)	34	-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55	13지점 18호	구릉사면	‘日’자	424	233	28	9.8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56	14지점 15호	구릉사면	‘日’자	460	288	27	13.2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숯돌	
	57	14지점 16호	구릉사면	‘日’자	(344)	277	31	-	기반층	기와편, 청동시	
	58	11지점 3호	구릉사면	‘칸’(1×?)	381	170	20	6.4	기반층	도기편, 철화백자편	

	59	12지점 11호	구룡사면	'칸'(5×2)	1034	205	85	21.1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60	13지점 16호	구룡사면	'칸'(2×3)	515	433	85	22.2	기반층	도기편, 기와편	
	61	13지점 20호	구룡사면	'칸'(1×3)	589	252	85	14.8	기반층	옹기편, 기와편	
	62	13지점 43호	구룡사면	'칸'(1×1)	565	215	20	12.1	기반층	도기편, 기와편, 철기편	
	63	13지점 46호	구룡사면	'칸'(4×?)	972	(240)	50	-	기반층	도기편, 기와편	
	64	14지점 14호	구룡사면	'칸'(1×1)	591	325	15	19.2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65	14지점 17호	구룡사면	'칸'(2×1)	726	555	50	40.4	기반층	도기편, 자기편, 기와편	
	66	14지점 18호	구룡사면	'칸'(2×1)	729	480	27	34.9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용인 고림동 유적	67	1호	구룡정상부	'칸'(3×1)	808	192	20	15.5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중·후기
	68	2호	구룡정상부	'칸'(3×1)	772	204	14	14.4	기반층	기와편, 철기편	
용인 남사(아곡) 유적	69	4지점 1호	구룡정상부	장방형	510	305	20	15.5	석재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철기편	전기
	70	4지점 2호	구룡정상부	장방형	364	254	30	9.2	석재	도기편, 백자장군, 기와편, 철기편	
용인 중동 유적	71	1호	구룡사면	'칸'(3×1)	840	240	54	20.6	기반층	도기편	중·후기
	72	2호	구룡사면	'칸'(3×2)	886	590	54	17.8	기반층	도기편, 기와편, 철기편	
	73	3호	구룡사면	'칸'(1×?)	(354)	-	20	-	기반층	자기편	
용인 완장리 유적	74	3-2지점 1호	구룡사면	'ㅁ'자	359	336	43	12	기반층	도기편, 기와편, 자기편	중·후기
	75	3-2지점 1호	구룡사면	'칸'(4×1)	326	165	54	5.3	기반층	도기편	
평택 고덕 유적 (서경)	76	1지점2차 1호	구룡사면	장방형	306	242	29	7.4	석재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전기
	77	1지점2차 2호	구룡사면	장방형	380	204	56	7.7	석재	도기편, 기와편,	
	78	1지점2차 8호	구룡사면	장방형	388	176	27	5.9	기반층	기와편	
	79	7-나지점 4호	구룡사면	'ㅁ'자	272	(144)	34	-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중·후기
	80	7-나지점 5호	구룡사면	'ㅁ'자	(660)	(286)	40	-	기반층	-	
	81	7-나지점 6호	구룡사면	'ㅁ'자	272	168	38	4.5	기반층	-	
	82	7-나지점 7호	구룡사면	'ㅁ'자	366	226	70	7.5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83	7-나지점 8호	구룡사면	'ㅁ'자	(240)	(140)	24	-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84	7-나지점 9호	구룡사면	'ㅁ'자	400	350	30	14	기반층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85	7-나지점 10호	구룡사면	'ㅁ'자	(198)	(196)	19	-	기반층	백자편	
	86	7-나지점 11호	구룡사면	'ㅁ'자	390	176	42	6.8	기반층	백자, 도기편	
	87	7-나지점 12호	구룡사면	'ㅁ'자	380	254	26	9.6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88	7-나지점 13호	구룡사면	'ㅁ'자	(150)	124	14	-	기반층	미상석기	
	89	7-나지점 14호	구룡사면	'ㅁ'자	(148)	(248)	26	-	기반층	-	
	90	7-나지점 15호	구룡사면	'ㅁ'자	(230)	(226)	20	-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91	7-나지점 16호	구룡사면	'ㅁ'자	(150)	(84)	14	-	기반층	도기편	
	92	7-나지점 17호	구룡사면	'ㅁ'자	(230)	(226)	20	-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93	7-다지점 1호	구룡사면	'ㅁ'자	444	370	24	16.4	기반층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94	7-다지점 2호	구룡사면	'ㅁ'자	356	276	52	9.8	기반층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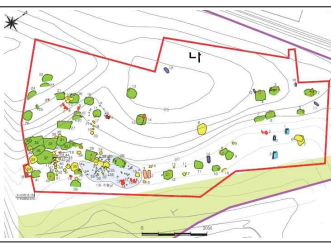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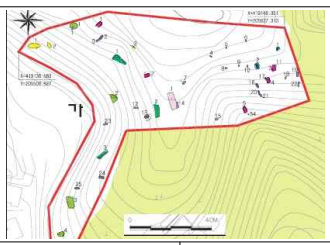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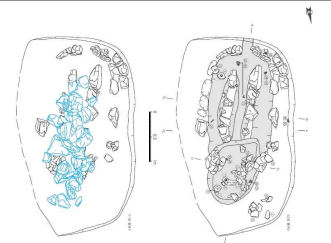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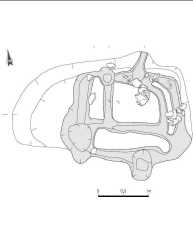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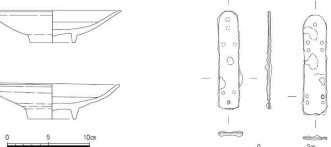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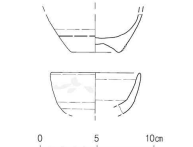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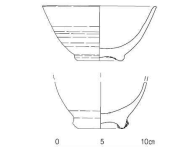
	95	7-다지점 3호	구룡사면	‘日’자	(254)	174	21	-	기반층	-	
	96	7-다지점 7호	구룡사면	‘日’자	314	272	20	8.5	기반층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97	7-다지점 8호	구룡사면	‘칸’(3×1)	(588)	(300)	24	-	기반층	-	
	98	7-다지점 10호	구룡사면	‘日’자	(376)	(240)	38	-	기반층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99	7-다지점 14호	구룡사면	‘日’자	406	306	24	12.4	기반층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100	7-다지점 15호	구룡사면	‘칸’(3×1)	878	300	30	26.3	기반층	-	
	101	7-다지점 16호	구룡사면	‘日’자	376	256	64	9.6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102	7-다지점 17호	구룡사면	‘日’자	316	224	72	7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솔뚜껑 포함)	
	103	32지점 5호	구룡사면	‘日’자	360	234	32	8.4	기반층	도기편	
	104	32지점 9호	구룡사면	‘日’자	388	222	62	8.6	기반층	백자편	
평택 방축리 ·여열리 ·궁리 유적	105	31지점 1호	구룡사면	장방형	216	95	16	2	기반층	-	전기
	106	31지점 4호	구룡사면	장방형	267	138	17	3.6	기반층	도기편	
	107	31지점 27호	구룡사면	장방형	362	111	41	4	기반층	백자편	
	108	33지점 55호	구룡사면	장방형	292	159	25	4.6	기반층	기와편	
	109	33지점 68호	구룡사면	장방형	214	187	17	4	기반층	기와편	
	110	33지점 79호	구룡사면	장방형	392	90	22	3.5	기반층	도기편	
	111	33지점 80호	구룡사면	장방형	426	104	21	4.4	기반층	기와편	
	112	35지점 10호	구룡사면	장방형	288	143	21	4.1	기반층	기와편	
	113	35지점 11호	구룡사면	세장방형	521	156	21	8.1	기반층	백자편, 기와편	
	114	35지점 16호	구룡사면	장방형	298	138	21	4.1	기반층	-	
	115	35지점 26호	구룡사면	세장방형	198	160	21	7.9	기반층	-	
	116	35지점 45호	구룡사면	장방형	208	115	21	2.3	기반층	철기편	
	117	35지점 56호	구룡사면	장방형	288	156	32	4.4	기반층	분청사기편, 기와편	
	118	31지점 12호	구룡사면	‘日’자	446	160	24	7.1	기반층	-	중·후기
	119	31지점 15호	구룡사면	‘日’자	334	191	29	6.3	기반층	백자편, 기와편	
	120	31지점 30호	구룡사면	‘몸’자	365	168	25	6.1	기반층	-	
	121	32지점 9호	구룡사면	‘日’자	408	149	32	6	기반층	-	
	122	33지점 1호	구룡사면	‘몸’자	247	197	29	4.8	기반층	백자편	
	123	33지점 2호	구룡사면	‘몸’자	239	148	45	3.5	기반층	-	
	124	33지점 3호	구룡사면	‘몸’자	349	138	23	4.8	기반층	기와편	
	125	33지점 12호	구룡사면	‘日’자	637	175	22	11.1	기반층	-	
	126	33지점 13호	구룡사면	‘日’자	597	162	27	9.6	기반층	백자편	
	127	33지점 14호	구룡사면	‘日’자	393	135	22	5.3	기반층	백자편	
	128	33지점 15호	구룡사면	‘몸’자	290	133	36	3.8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129	33지점 23호	구룡사면	‘日’자	291	133	33	3.8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130	33지점 25호	구룡사면	‘日’자	535	156	24	8.3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131	33지점 26호	구룡사면	‘몸’자	316	171	29	5.4	기반층	-	

	132	33지점 31호	구룡사면	‘日’자	392	134	22	5.2	기반층	도기편	
	133	33지점 74호	구룡사면	‘日’자	506	388	20	19.6	기반층	기와편	
	134	33지점 76호	구룡사면	‘日’자	462	309	15	14.2	기반층	-	
	135	33지점 91호	구룡사면	‘日’자	309	164	15	5	기반층	-	
	136	33지점 94호	구룡사면	‘日’자	381	283	16	10	기반층	백자편	
	137	33지점 95호	구룡사면	‘日’자	349	261	29	9.1	기반층	기와편	
평택 옥길리 유적	138	가지역 13호	구룡사면	‘日’자	340	265	30	9	기반층	-	전기
	139	나지역 5호	구룡사면	장방형	536	190	25	10.1	석재	백자편	
	140	가지역 1호	구룡사면	장방형	514	412	75	21.1	기반층	도기편	중·후기
	141	가지역 2호	구룡사면	‘呂’자	270	200	33	5.4	기반층	-	
	142	가지역 3호	구룡사면	‘呂’자	(190)	150	15	-	기반층	-	
	143	가지역 4호	구룡사면	‘呂’자	280	(115)	26	-	기반층	기와편	
	144	가지역 5호	구룡사면	‘呂’자	270	185	20	4.9	기반층	-	
	145	가지역 6호	구룡사면	‘呂’자	250	(155)	10	-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화성 구문원리 유적	146	A지구 12호	구룡정상부	장방형	297	155	20	4.6	기반층	도기편, 백자편	전기
	147	A지구 3호	구룡정상부	‘呂’자	336	202	30	6.7	기반층	-	중·후기
	148	A지구 4호	구룡정상부	‘呂’자	385	270	30	10.3	기반층	백자편	
	149	A지구 9호	구룡정상부	‘日’자	362	195	62	7	기반층	백자편	
	150	A지구 10호	구룡정상부	‘呂’자	371	248	72	9.2	기반층	-	
	151	A지구11호	구룡정상부	‘呂’자	288	180	52	5.1	기반층	-	
화성 남양동 유적	152	1지점 7호	구룡사면	장방형	564	212	30	11.9	석재	분청사기편, 백자편, 철기편	전기
	153	4지점 22호	구룡사면	장방형	455	170	38	7.7	석재	분청사기편, 백자편,	
	154	4지점 26호	구룡사면	장방형	540	273	20	14.7	석재	철기편, 솥돌	중·후기
	155	2지점 1호	구룡사면	‘呂’자	245	215	40	5.2	기반층	백자편	
	156	3지점 2호	구룡사면	‘呂’자	265	235	47	6.2	기반층	백자편, 자기편, 기와편	
	157	6지점 5호	구룡사면	‘呂’자	340	285	30	9.6	기반층	백자편, 기와편	
화성 향남2지구 유적	158	1지점 14호	구룡사면	‘日’자	320	236	13	7.5	기반층	-	중·후기
	159	1지점 1호	구룡사면	‘呂’자	(460)	270	20	-	기반층	백자편, 철기편	
	160	1지점 2호	구룡사면	‘呂’자	355	340	24	12.7	기반층	백자편	
	161	1지점 3호	구룡사면	‘呂’자	(200)	223	26	-	기반층	-	
	162	1지점 5호	구룡사면	‘呂’자	307	190	30	5.8	기반층	백자편	
	163	1지점 11호	구룡사면	‘呂’자	382	283	36	10.8	기반층	백자편, 도기편	
	164	1지점 12호	구룡사면	‘呂’자	492	250	56	12.3	기반층	-	
	165	1지점 13호	구룡사면	‘呂’자	310	225	28	6.9	기반층	백자편	
	166	5지점 3호	구룡사면	‘呂’자	357	138	-	4.9	기반층	기와편, 철기편	
	167	5지점 7호	구룡사면	‘呂’자	(240)	240	27	-	기반층	백자편, 기와편	

1) 수원 광고 신도시 문화유적(3지구)⁴²⁾

수원 광고 신도시 문화유적은 광고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행정타운 건설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08년~2009년에 걸쳐 기호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80기, 야외노지 30기, 수혈 152기 등의 대규모 취락이 보고되었다. 백자 및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8C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2> 광고 신도시 문화유적(3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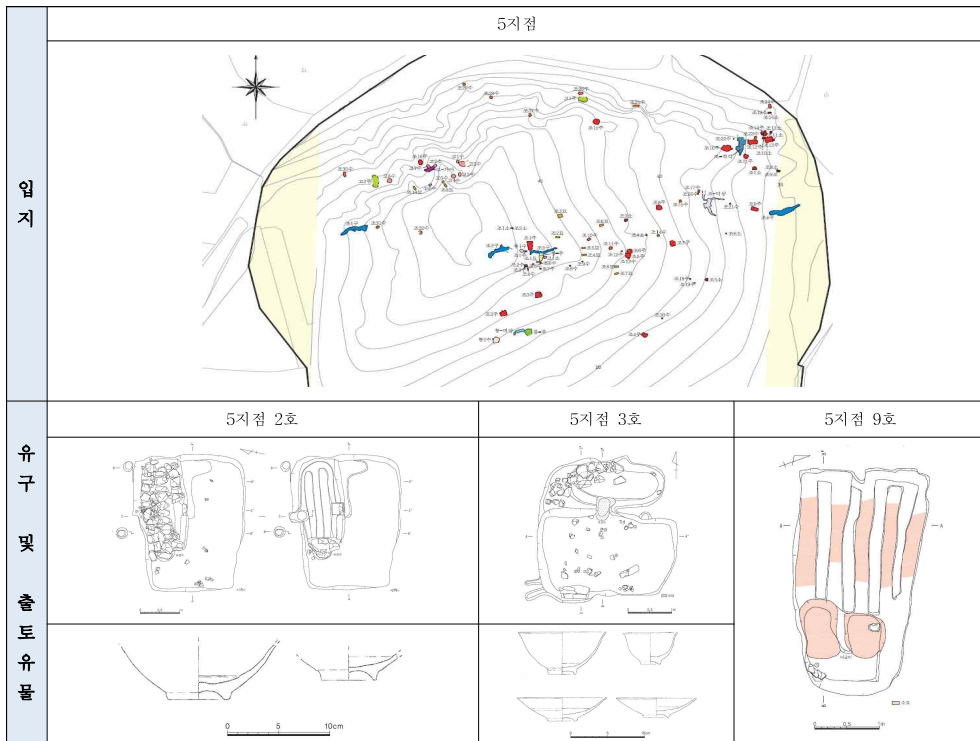
입지	9-나지점		11-나지점	
				
유구 및 출토 유물	9-나지점 36호		11-나지점 5호	11-나지점 6호
				
유구 및 출토 유물				

42)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책.

2) 수원 호매실동 · 금곡동 유적⁴³⁾

수원 호매실동 · 금곡동 유적은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07년~2009년에 걸쳐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52기, 수혈 52기, 적석유구 1기 등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 및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8C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3> 수원 호매실동 · 금곡동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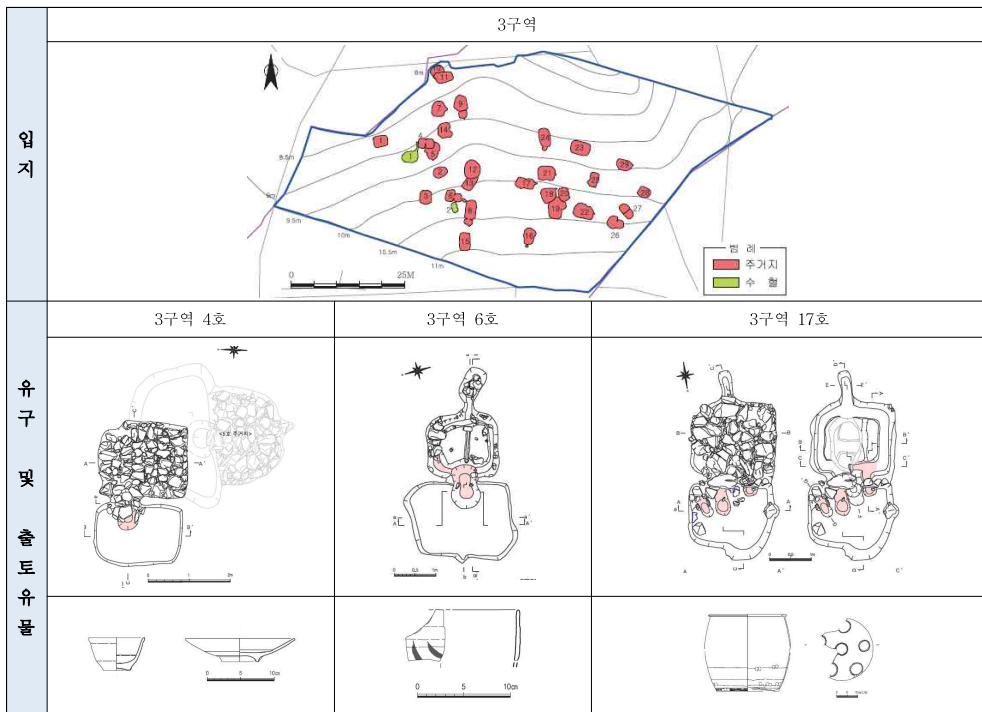


43) 京畿文化財研究院, 2011, 앞의 책.

3) 시흥 장곡동 유적⁴⁴⁾

시흥 장곡동 유적은 시흥 장곡동 748-1전 일원에 위치하며 2012년 고려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3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밀집·분포하며 매우 양호한 상태의 주거지 29기, 수혈유구 2기 등이 보고되었다. 총 29기의 주거지가 밀집해있는 단위마을로써 시기는 백자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7C~18C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4> 시흥 장곡동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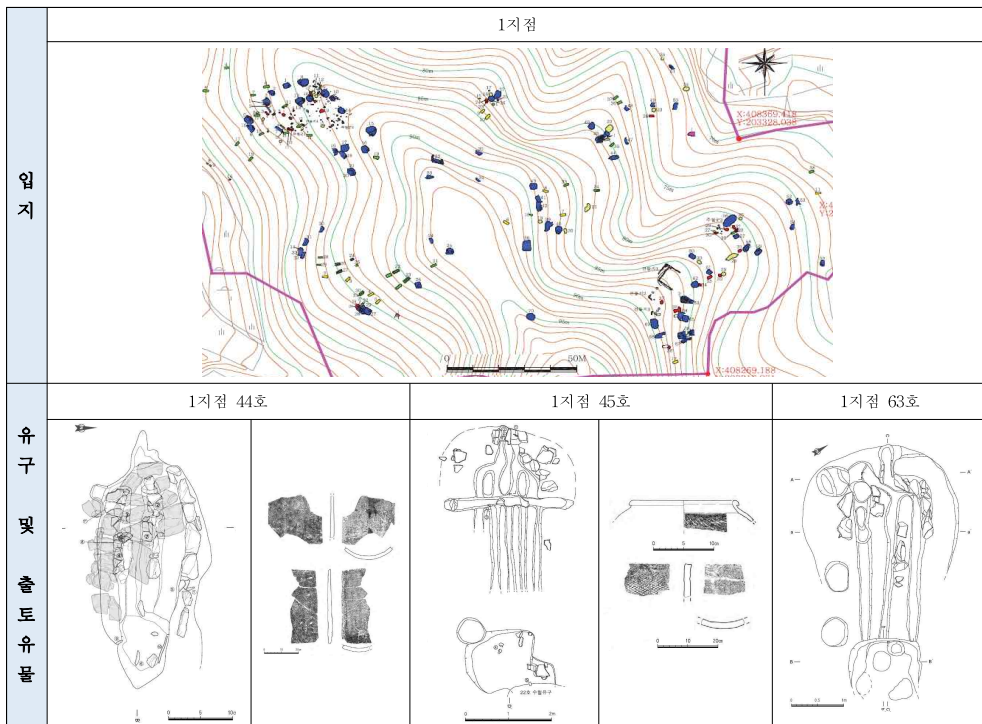


44) 京畿文化財研究院, 2011, 앞의 책.

4) 오산 지곶동 유적⁴⁵⁾

오산 지곶동 유적은 오산 지곶동 산37임 · 51-1전 일대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07년~2008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79기, 건물지 4기, 수혈 39기 등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 및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6C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5> 오산 지곶동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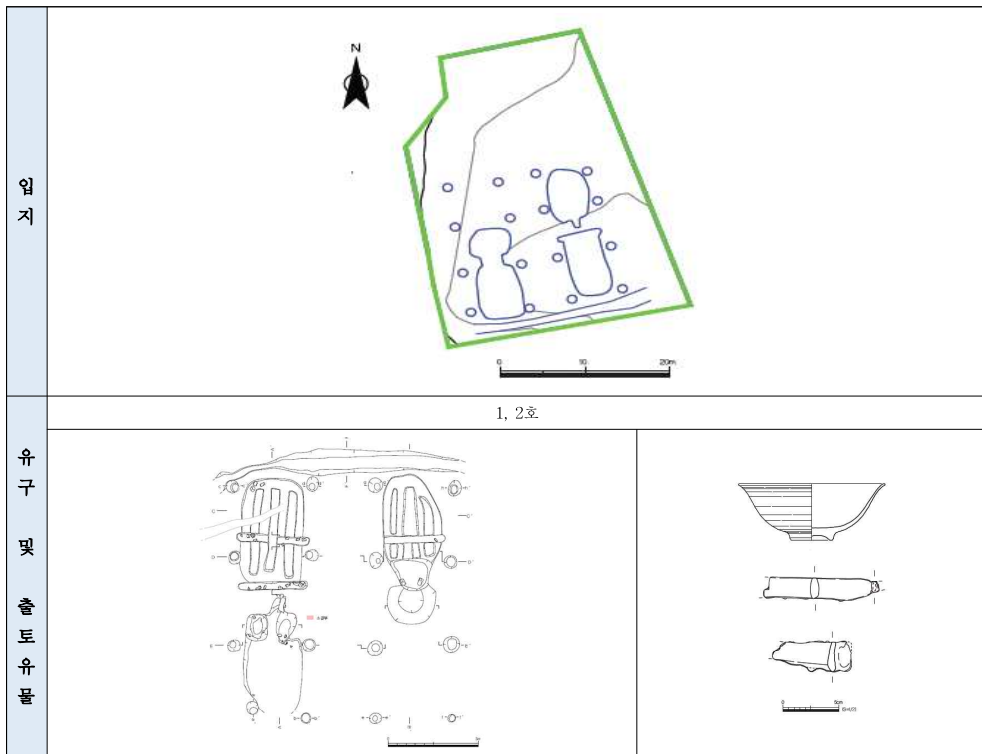


45)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앞의 책.

5) 용인 고림동 유적⁴⁶⁾

용인 고림동 유적은 용인 고림동 산9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2009년 서경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는 2기가 확인되었으며 배수시설, 구들, 등간격의 주혈배치 등 매우 양호하게 노출되었다. 시기는 백자와 철기편 등으로 판단할 때 18C~19C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6> 용인 고림동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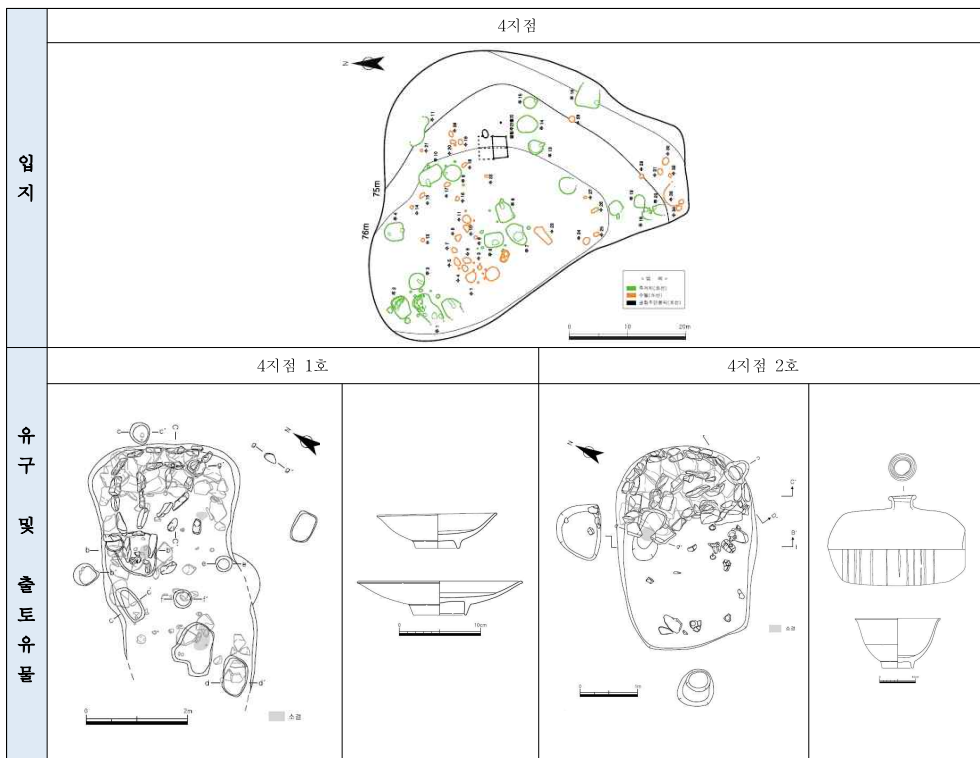


46) 서경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책.

6) 용인 남사(아곡) 유적47)

용인 남사(아곡) 유적은 용인 남사면 아곡리 25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09년~2013년까지 서경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69기, 수혈 130기, 소성유구 11기 등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 또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7C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7> 용인 남사(아곡)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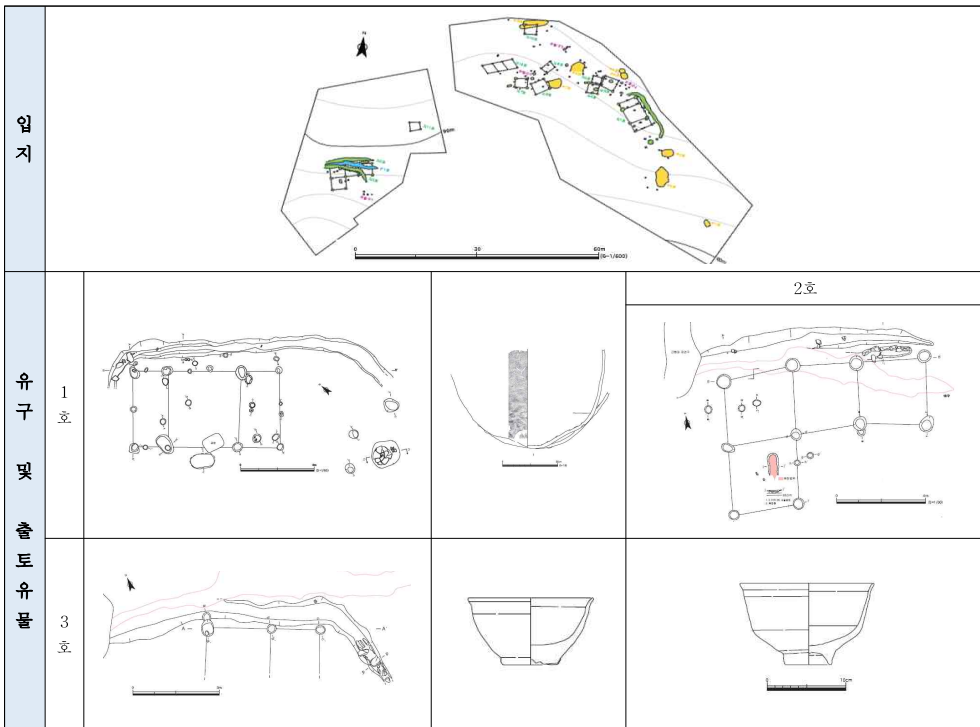


47)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앞의 책.

7) 용인 중동 유적⁴⁸⁾

용인 중동 유적은 용인 중동 60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09년 서경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또는 부속시설 12기, 주혈군 3개소, 수혈 7기 등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와 기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18C~19C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8> 용인 중동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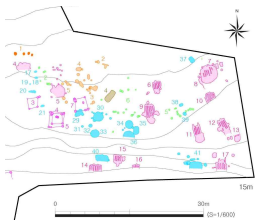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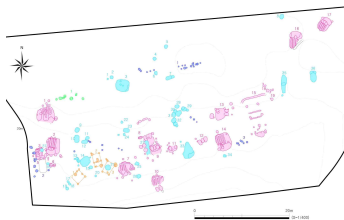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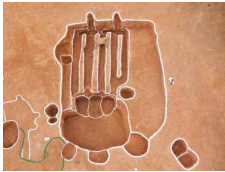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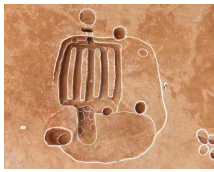


48) 중동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책.

8)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도시 경계부연결도로 내 유적(유물산포지 7)⁴⁹⁾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도시 경계부연결도로 내 유적(유물산포지 7)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14년~2016년에 걸쳐 서경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유물산포지 7의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40기, 수혈 101기, 굴립주 건물지 3기 등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와 도기,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9C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9>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도시 경계부연결도로 내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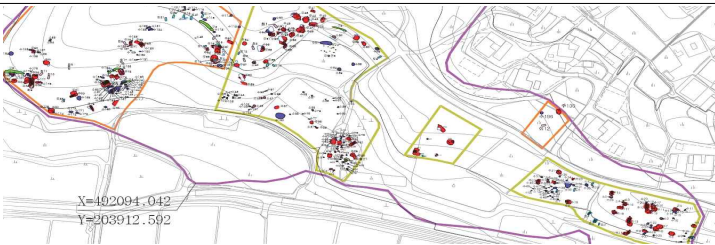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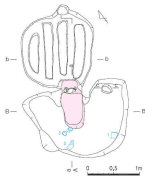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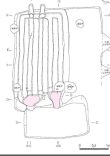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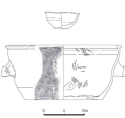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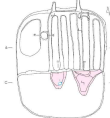
입지	7-나지점		7-다지점	
				
유구 및 출토 유물	7-나지점 11호		7-다지점 2호	
				
			7-다지점 14호	
				
			7-다지점 8호	
				
			7-다지점 15호	
				

49) 서경문화재연구원, 2016, 앞의 책.

9) 평택 방축리 · 여염리 · 궁리 유적⁵⁰⁾

평택 방축리 · 여염리 · 궁리 유적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11년~2013년에 걸쳐 기호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의 경우 31지점에서 38기, 32지점에서 11기, 33지점에서 100기, 35지점에서 59기 총 208기가 노출되었고 수혈 857기, 소성유구 106기 등 대단위 취락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 또는 도기 및 기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8C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0> 평택 방축리 · 여염리 · 궁리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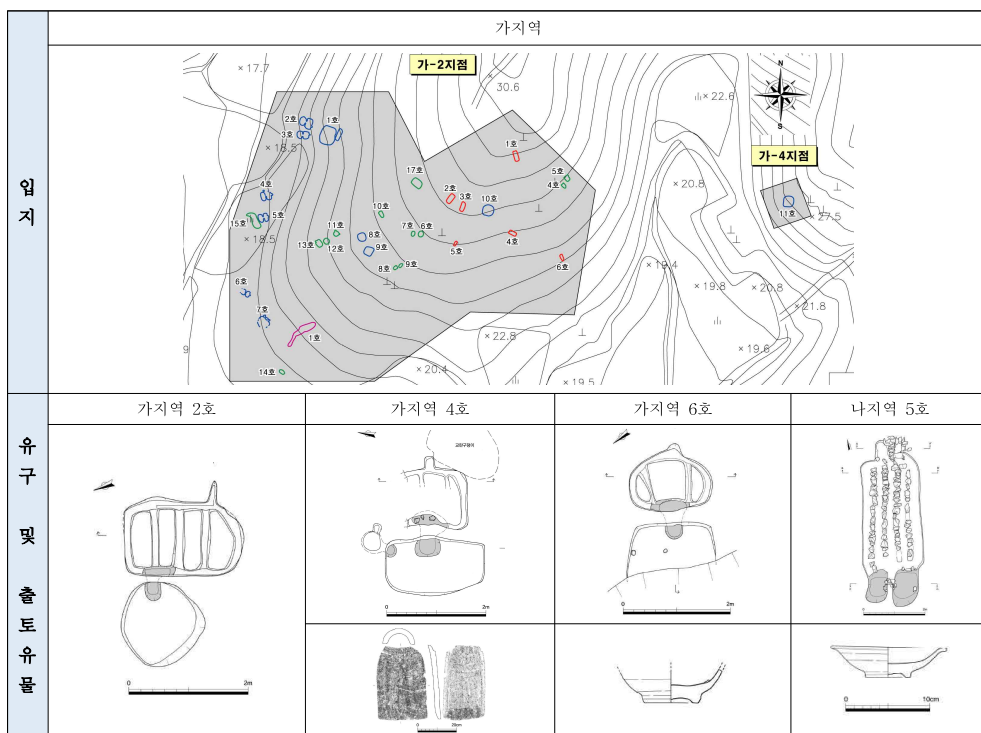
입지	33지점		
			
유구 및 출토 유물	33지점 15호	33지점 25호	33지점 76호
			
			

50) 기호문화재연구원, 2016, 앞의 책.

10) 평택 옥길리 유적⁵¹⁾

평택 옥길리 유적은 평택 청북면 옥길리 555번지 일원에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30기, 수혈 24기, 소성유구 2기 등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와 기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8C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1> 평택 옥길리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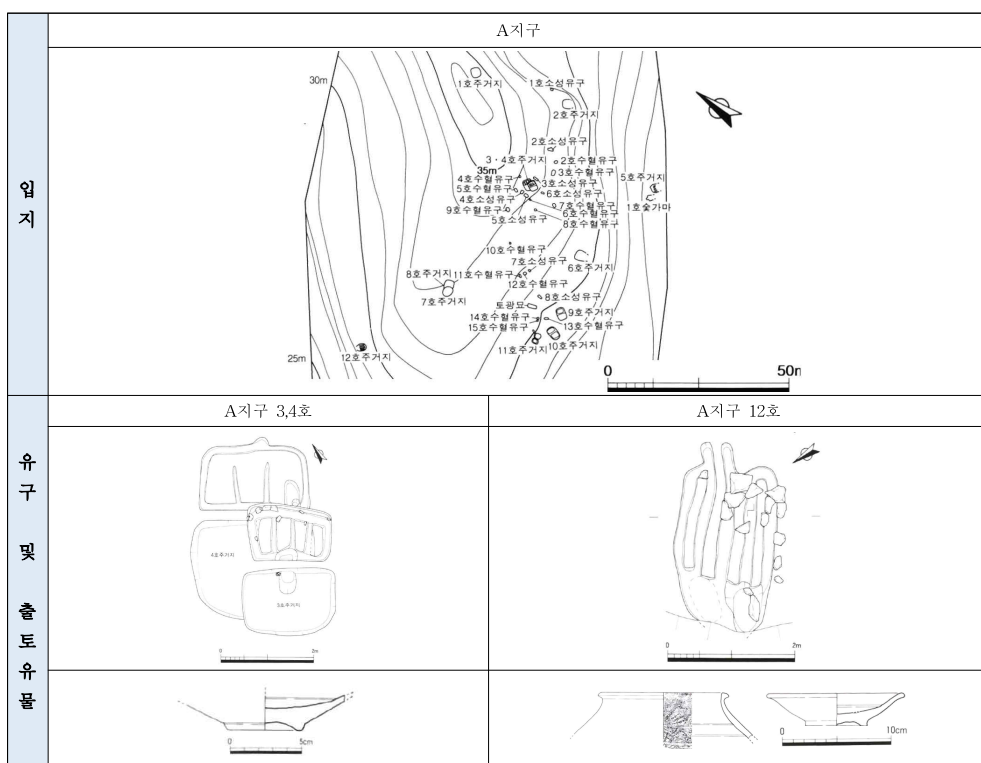


51) 中央文化財研究院, 2008, 앞의 책.

11) 화성 구문천리 유적⁵²⁾

화성 구문천리 유적은 화성 구문천리 282-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발안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03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19기, 수혈 18기, 석열 1기 등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백자 및 기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7C~19C로 판단된다.

<도면 12> 화성 구문천리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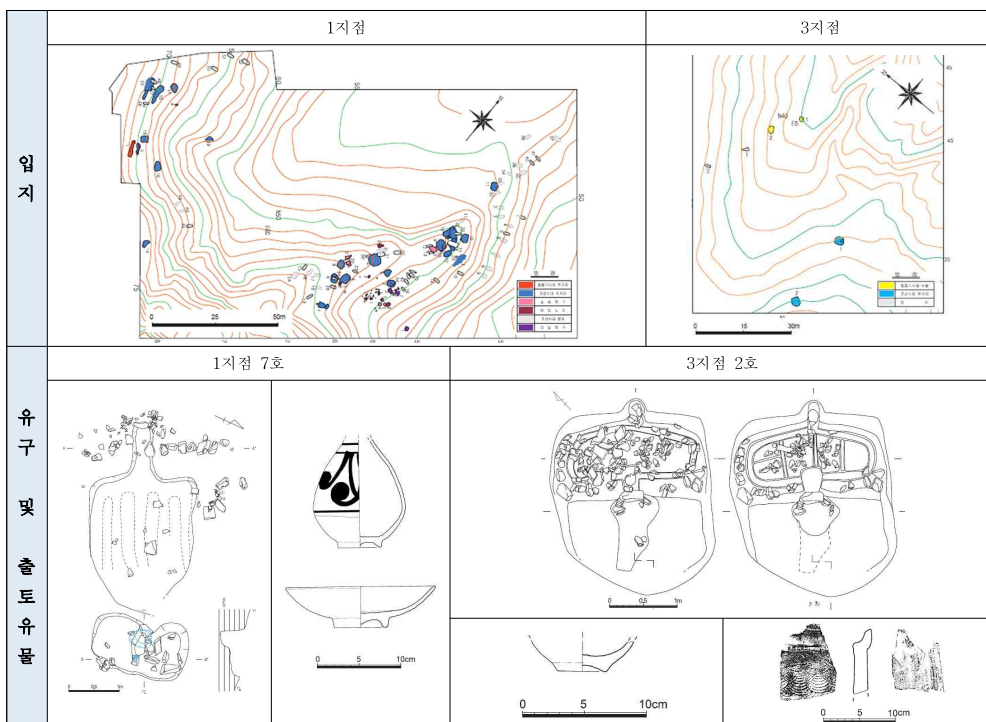


52)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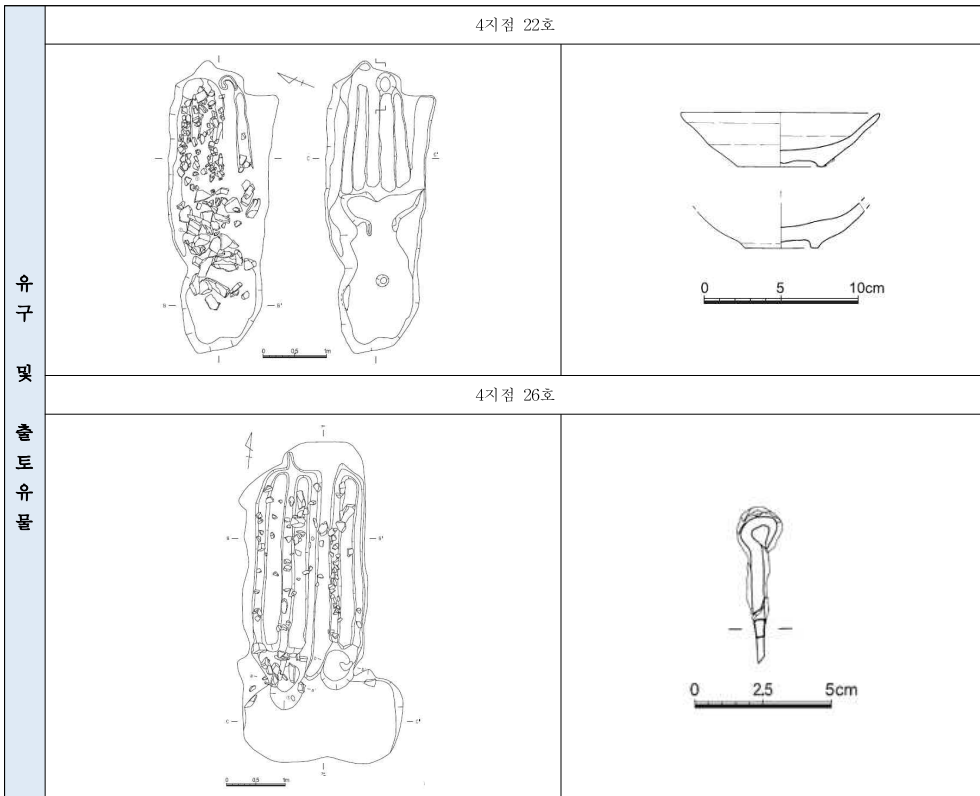
12) 화성 남양동 유적⁵³⁾

화성 남양동 유적은 ‘화성 남양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이며, 2004년~2007년에 걸쳐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 시대 생활유구는 주거지 110기, 건물지 1기, 수혈 14기, 야외노지 8개소 등의 대단위 취락이 보고되었다. 시기는 분청사기와 백자, 기와 및 방사성 탄소연대측정결과를 토대로 15C~18C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3> 화성 남양동 유적 현황



53)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앞의 책.



<표 2>에서 제시한 18개소 유적의 167동의 주거지를 검토해보면 전기와 중·후기 간에 몇 가지 특징이 도출된다. 따라서 전기와 중·후기의 평면형태, 구들열의 축조부재, 면적, 주거지가 분포하는 취락의 해발과 비고차 등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표 3·4·5·6>.

평면형태에서 나타나는 전기와 중·후기의 차이점은 다양성에 있다. 전기는 대부분 방형계를 띠고 있는 것에 반해 중·후기에는 ‘日’자, ‘ㄱ’자, ‘칸’으로 구분되는⁵⁴⁾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평면에서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전기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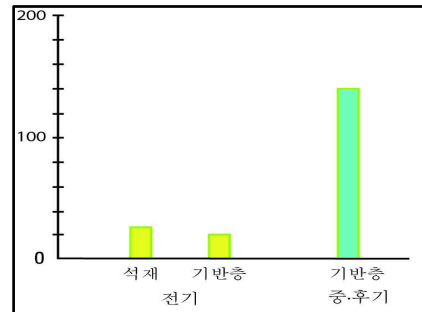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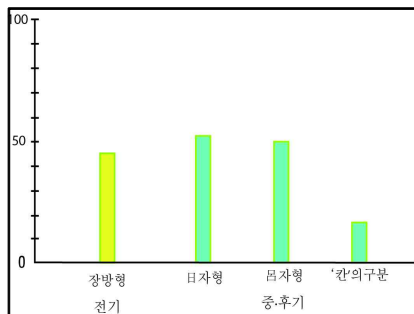
형계는 전체의 비율에서 28%를 나타내고 중·후기의 ‘日’자형은 31.8%, ‘冂’자형은 29.9%, ‘칸’으로 구분되는 평면형태는 10.2%로 확인되었다<표 3, 그림 6>.

<표 3>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평면형태 비교

시기	평면형태	해당 수(동)	비율(%)
전기	방형계	47	28.1
중·후기	‘日’자형	53	31.8
	‘冂’자형	50	29.9
	‘칸’의 구분	17	10.2

<표 4>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구들열 축조부재 비교

시기	축조부재	해당 수(동)	비율(%)
전기	석재	26	15.5
	기반층	21	12.5
중·후기	기반층	120	72



<그림 6> 전기와 중·후기의 평면형태 및 구들열 축조부재 비율

54) 중·후기의 ‘日’자, ‘冂’자형도 크게 보면 방형계에 포함되나 특징적인 평면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구들열의 부재에 있어서는 전기에는 석재 또는 기반층을 이용하는 반면 중·후기에는 기반층만 이용하여 조성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전기에는 석재를 이용하는 방식이 15.5%, 기반층을 굴착하는 방식은 12.5%이며 석재를 이용하는 방식의 비율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중·후기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구들열을 이용하는 방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모두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전체에 7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4, 그림 6>.

면적은 전기의 유적 중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31지점 1호 주거지의 면적이 2m²로 가장 좁게 나타났으며 평택 옥길리 유적 가구역 1호 주거지는 21.1m²로 가장 넓게 확인되었다. 평균면적은 7.6m²정도이다<표 5, 그림 7>.

중·후기에는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의 33지점 2호 주거지가 3.5m²정도로 가장 좁은 면적을 띠며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에서 ‘칸’의 형식으로 조성된 14지점 17호 주거지가 40.4m²로 가장 넓게 확인되었다. 평균면적은 12.4m²로 전기에 비해 확연하게 넓어지는 양상이다.

해발고도는 전기에 한해 가장 높게 확인되는 곳은 오산 지곶동 유적이며 95m 일대에 위치한다. 가장 낮게 보고된 유적은 화성 남양동으로, 13m 일대에서 확인된다. 전기 해당하는 취락은 대부분 해발고도 50m이상 분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평균은 54.3m 내외이다. 중·후기 유적의 해발고도는 용인 중동 유적 94m, 시흥 장곡동 유적이 8m로 가장 높고 낮게 분포한다. 중·후기에는 전기와 다르게 해발고도 30m 이하에 입지하는 취락비율이 높게 확인되며 평균은 32.4m 내외이다. 전기와 중·후기의 취락간 해발고도는 점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교차를 보면 좀 더 뚜렷해진다.

비교차는 유적 내 같은 공간에서 확인된 지상주거지 중 가장 높고 낮은 해발의 차를 말한다. 조선시대 경기남부지역에서 확인된 지상주거지 취락은 대부분 구릉에 분포하며 비교차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전기와 중·후기간 입지가 다소 상이했음을 알 수 있다<표 6, 그림 7>. 전기의 취락 중 비교차가 13m 내외 정도로 가장 적게 확인된 유적은 화성 남양동 유적이다. 화성 남양동 유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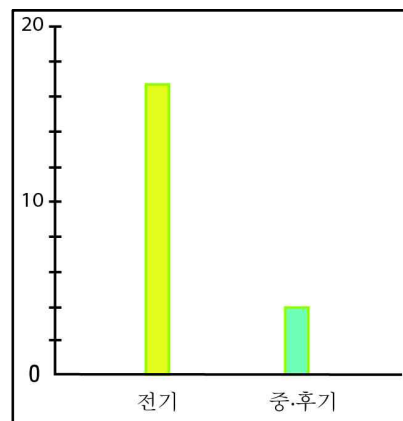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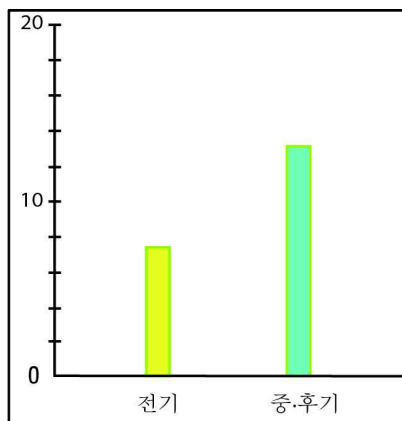
서 지상주거지가 확인된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은 25m이며 낮은 곳은 12m 정도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비고차가 22m정도로 전기의 취락 중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취락은 오산 지곶동 유적이다. 분포하는 지상주거지의 높은 지점 해발이 95m정도이고 낮은 지점이 73m 내외이다.

<표 5>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면적비교 (단위: m²)

시기	최소면적	최대면적	평균면적
전기	2	21.1	7.6
중·후기	3.5	40.4	12.4

<표 6> 연구대상 지상주거지의 전기와 중·후기 해발 비교차 (단위: m)

시기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기	12	22	16.2
중·후기	3	5	4.1



<그림 7> 전기와 중·후기의 면적 및 해발 비교차 평균 비율

전기 취락의 평균 비고차는 16.2m 정도로 비교적 큰 범위 내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중·후기에서는 시흥 장곡동 유적이 11m~8m로 비고차 3m,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경계부 연결도로 내 유적은 20m~15m로 비고차 5m로 가장 낮고, 높게 나타난다. 평균 비고차는 4.1m이며 전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에는 경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릉부 전체에 주거지가 입지했다면 중·후기에는 주로 나지막하고 평탄한 구릉부를 선점·선호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점이다<표 7>.

<표 7> 연구대상지 주요유적 취락간 비고차 비교

(단위: m)

시기	유적	해발분포	비고차
전기	광교신도시 문화유적	70m~54m	16m이내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	47m~34m	13m이내
	안성 만정리 신기 유적	62m~43m	19m이내
	오산 지곶동 유적	95m~73m	22m이내
	용인 남사(아곡) 유적	76m~62m	14m이내
	화성 남양동 유적	25m~13m	12m이내
중·후기	시흥 장곡동 유적	11m~8m	3m이내
	용인 중동 유적	94m~91m	3m이내
	평택 고덕(서경) 유적	20m~15m	5m이내
	평택 옥길리 유적	23m~18m	5m이내
	화성 구문천리 유적	35m~30m	5m이내
	화성 향남2지구 유적	23m~19m	4m이내

연구대상지 내 지상주거지의 평면형태, 구들열의 부재, 면적에 관한 변화는 당시의 사회상과 더불어 지상주거지가 발전하고 구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양란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일반서민들은 장기간보다는 단기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의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주거를 선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구릉 중심의 산속생활은 화전⁵⁵⁾이나 사냥, 약초 등의 잉여 생산물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또한 산속(구릉부)의 입지는 평지와 비교할 때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거나 여름의 통풍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중·후기에 이르면서 사회적으로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고 구들이 폭넓게 보급되는 등 지상주거지는 점차 발전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지상주거지의 거주기간이 단기에서 장기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활성화가 되어 일반 민(民)일지라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지상주거지는 면적은 공간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시기에 따른 해발고도와 비교차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회상 및 주거의 발전과 궤를 함께하며 공간개발을 위해 구릉지에 있던 민가 마을이 개발이후 충적지로 자리하거나 농법발달로 인해 구릉부에서 충적지로 이동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주목해볼만 하다⁵⁶⁾.

55) 해당시기의 사료를 참고하면 구릉부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서민들에 의해 화전이 크게 성행하였고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음을 알 수 있다.

《成宗實錄》(卷72, 7年) “本道에는 山田은 많고 平田은 적습니다. (중략) 해마다 바뀌가며 경작하는 火田은 속안에 기록하기 말고 가을마다 조사하여 경작에 상황에 따라 조세를 매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成宗實錄》(卷263, 23年) “...(중략) 산림에도 불을 질러 놓고 사냥을 하며 백성들도 火田을 일구어 경작합니다. 그래서 材木까지 바닥나게 생겼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컨대 법을 만들어 금하게 하소서”

《玄宗實錄》(卷6, 3年) “화전을 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56) 이경복, 2014, 「발굴유적으로 본 고려~조선시대 내포신도시의 역사적 성격」, 호서고고학회.

IV. 경기남부지역 조선시대 지상주거지의 변천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도출된 특징에 따라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형식분류를 토대로 단계설정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취락유형 및 성격을 검토하였다.

1. 형식분류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18개 유적 167동의 주거를 대상으로 형식분류를 실시하고자하며 형식분류의 기준⁵⁷⁾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와 중·후기 간에 시간적 흐름이 간취되는 지상주거지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표 8>. 이러한 형식분류는 편년수립에 있어 기초 작업이며, 지상식 주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상주거의 특징에 따라 세부적인 편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연구대상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형식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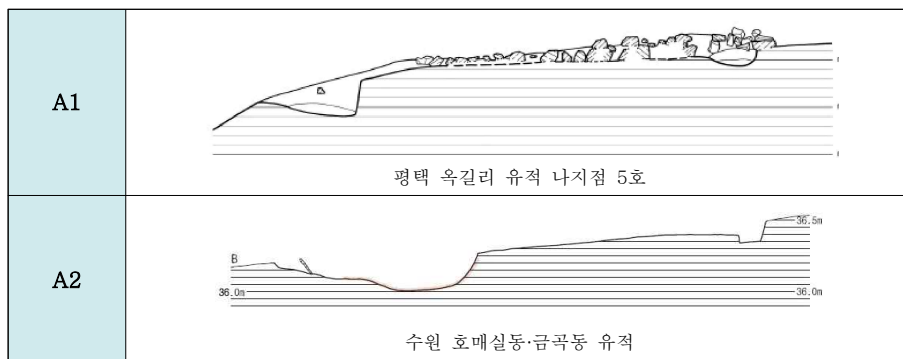
A식	공간일체형	A1	구들열의 부재(석재)	전기 (14C후반~16C후반)
		A2	구들열의 부재(기반층)	
B식	공간분리형	B1	‘日’자형	중·후기 (16C후반~19C이후)
		B2	‘呂’자형	
		B3	‘칸’의 구분	

57) 특정시기에 유행하는 형식이 등장하고 이전의 형식을 대신하여 다시 다른 형식이 성행하기까지 일정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 때문에 제시하는 형식들은 시기는 명확한 시점에 등장하기 보다는 해당시기의 주된 조성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쉬울 것이다.

연구대상지의 조선시대 지상주거지는 시간적 변화양상은 크게 평면형태와 취·난방시설, 즉 구들의 부재에 따라 결정된다. 이 중 평면형태는 공간의 쓰임새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 일차적인 분류는 평면형태 및 공간의 변화⁵⁸⁾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취·난방시설의 세부적인 속성에 따라 세분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취·난방시설과 공간의 쓰임새의 변화는 상호 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시의 사회·정치·경제와 관련지어 세부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A형식

A형식은 공간일체형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비롯하여 종단면형태에서 경사 또는 단에 의한 별도의 공간적 구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8>. 즉 주생활면은 지상에 설치되어있는 상태이며 연소부(아궁이)만 확인되는 형식이다. A형식은 내부 취·난방시설인 구들열의 축조부재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나뉜다<도면 14>.



<그림 8> A형식 종단면형태

58) 공간의 쓰임새에 따라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평면형태에서도 육안의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거지의 종단면형태를 살펴보면 주생활공간과 보조생활공간의 높낮이 차이가 명백한 것은 공간분리형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공간일체형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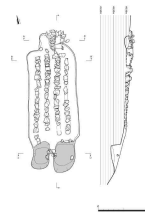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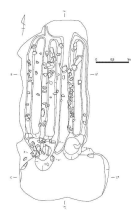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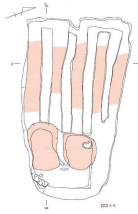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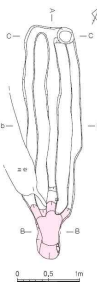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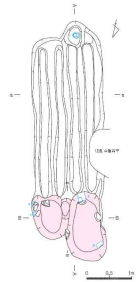
A1식은 주 축조재료인 석재를 이용하여 구들열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구들열을 일부 수혈한 후 일정한 간격의 석재를 설치하였으며 그 상부에 덮개돌(판석)을 얹은 형태이다. 틈새는 소형할석이나 점토를 이용하여 덧발라 채워 넣었다. 구들은 3~6줄을 이루고 있으며 효율적인 난방효과증대를 위해 면적에 비례하여 1~2개씩 조성되는 양상이다. 면적은 6.6㎡~14.4㎡내외이며 평균은 9㎡이다. 현재까지 연구자들의 분류안⁵⁹⁾에 따르면 주거에서 한 사람당 필요한 면적을 3㎡~5㎡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형식의 면적에서는 최소 2명~최대 3명까지 생활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1식은 광교신도시, 안성 칠곡리, 오산 지곶동, 오산 탑동·두곡동, 평택 고덕, 평택 옥길리, 화성 남양동 등 8개 유적에서 26(15.5%)기로 나타난다.

A2식은 구들열의 재료가 기반층이며 일정깊이까지 충분히 굴착한 후 조성한 형태이다. 구들열의 상부에는 덮개돌(판석)을 얹은 형태이며 기울기를 조정하기 위해 소형의 뿔돌이나 기와를 이용해 높낮이를 맞췄다. 구들의 열과 독의 간격과 너비는 정형하지가 않으며 불규칙하다. 구들 열은 2~4줄 내외의 작은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연소부(아궁이)에 비해 구들부분이 매우 세장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면적은 2㎡~21.1㎡내외이며 평균은 5.7㎡이다⁶⁰⁾. 해당형식의 면적에서는 최소 1명~최대 2명 정도까지 생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2식은 광교신도시,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오산 탑동·두곡동,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평택 고덕(서경), 평택 옥길리, 화성 구문천리 등 7개 유적에서 21(12.5%)기로 나타난다.

59) 취락연구회, 2004, 『竪穴住居址 調査方法論』, 서울:춘추각, pp. 172-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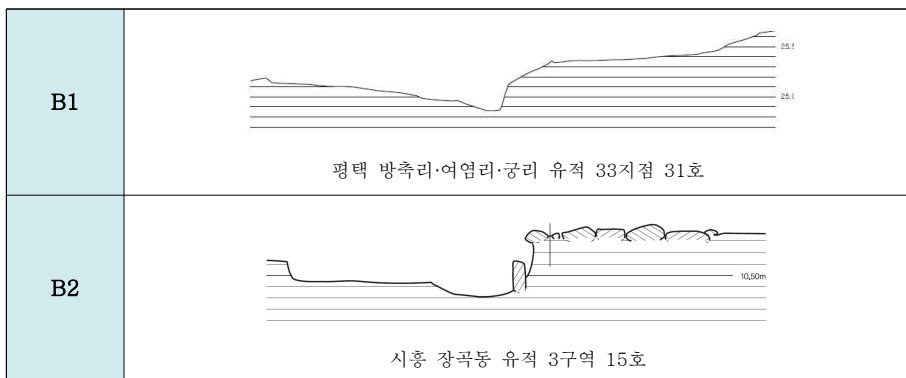
60) 평택 옥길리 유적 가지역 1호 주거지의 면적은 21.1㎡로 대형에 속하는데 이를 제외한 A2형 주거지들의 평균면적은 4.8㎡ 내외로 소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유적의 주거지는 주거의 목적보다는 집회나 공동작업장 등의 특수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4> A형식 분류도

형식	일체형	내부시설		주요유구			전체 빈도수			
		구들열 (석재)	구들열 (기반층)							
A1	▲	▲			평택 옥길리 유적 나지점 5호		용인 남사(아곡)유적 4지점 1호		화성 남양동 유적 4지점 26호	26/167 16.1%
A2	▲		▲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 5지점 9호		평택 방축리·여암리·궁리 유적 33지점 79호		평택 방축리·여암리·궁리 유적 35지점 11호	21/167 12.5%

2) B형식

B형식은 공간분리형으로, 주생활공간과 기타·보조생활공간을 구분하여 주거지를 조성한 형태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나 종단면형태에서도 단의 의한 공간구분이 명확한 편이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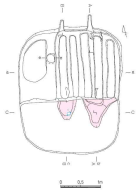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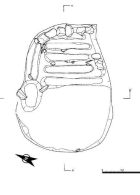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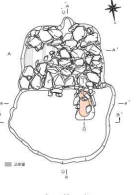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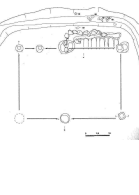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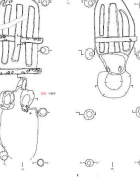


<그림 9> B형식 종단면형태

B형식은 내부 취·난방시설인 구들열의 축조부재와 조성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도면 15>.

B1식은 평면형태가 ‘日’자형을 띠며 기반층을 굴착하여 단 또는 경사에 의한 공간구분이 명확한 편이다. 구들열은 기반층을 일정깊이까지 충분히 굴착한 후 덮개돌을 얹은 방식이며 대부분 여러줄고래가 설치되어 있다. 높낮이는 푼돌이나 기와 등으로 수평을 유지시켰다. 구들열은 4~10줄까지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열과 독은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으며 정형성을 띠고 있다. B1식은 부뚜막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들열과 면적에 비례해 2개 내외로 설치되어 있다. 면적은 3.8㎡~19.6㎡내외로 매우 다양하며 평균은 9.2㎡이다. A형식에 비해 확연하게 넓어지는 양상이다.

<도면 15> B형식 분류도

형식	분리형	내부시설			주요유구	전체 빈도수	
		‘日’자형	‘冂’자형	‘칸’의 구분			
B1	▲	▲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33지점 96호	 화성 향남2지구 유적 1지점 14호	53/167 31.7%
B2	▲		▲		 시흥 장곡동 유적 3구역 16호	 오산 갈곶동 유적 1지구 10호	50/167 29.9%
B3	▲			▲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 15-1호	 용인 고림동 유적 1.2호	17/167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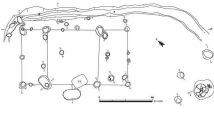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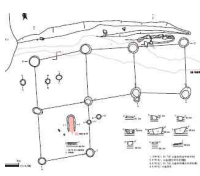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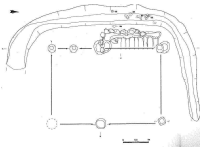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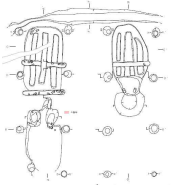
해당형식의 면적에서는 최소 2명~최대 3명까지 생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B1식의 주생활공간과 보조생활공간의 비율은 1 : 0.8~1 내외로 주생활공간이 보조생활공간에 비해 더 큰 경향이다. B2식은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오산 탑동·두곡동, 평택 옥길리, 화성 구문천리 등 9개 유적 53(31.7%)기로 확인된다.

B2식은 평면형태가 ‘ㄴ’자형을 띠며 구들열의 구성하는 방법은 기반층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단에 의한 공간구분이 명확하다. 구들열은 2줄 고래부터 여러줄고래까지 다양하게 확인된다. 부뚜막은 대부분 한쪽으로 편재하여 1개만 설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면적은 $3.5\text{m}^2 \sim 19.6\text{m}^2$ 내외로 매우 다양하며 평균은 8.9m^2 이다. 해당형식의 면적에서는 B1과 마찬가지로 2~3명 정도의 인원이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B2식의 주생활공간과 보조생활공간의 비율은 1 : 0.5~1.2 내외로 때에 따라 주생활공간이나 보조생활공간의 중요도에 따라 활용 폭을 키웠다. B2식은 광교신도시, 시흥 장곡동, 오산 갈곶동, 화성 향남2지구, 화성 남양동 등 9개 유적 50(29.9%)기가 확인된다.

B3식은 ‘칸’에 의해 다양한 평면형태로 구분된다<표 9>. 공통적으로 상단부에는 배수시설이 확인되며 주생활공간에는 여러줄고래가 설치되어있는 양상이다. 면적은 $5.3\text{m}^2 \sim 40.4\text{m}^2$ 내외로 다양하게 확인되며 평균은 19.3m^2 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당형식 한 칸의 평균면적은 4m^2 정도이며 최소 2명~최대 9명 내외로 생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B3식은 오산 탑동·두곡동, 용인 고림동, 용인 중동, 평택 고덕(서경) 등 5개 유적 17(10.1%)기가 보고되었다. 조선시대 이전 시기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주거가 상당수 보고되었으나 내부시설인 구들이 설치되거나 내부 흔적이 확인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표 9> B3형식 평면형태

-자형	ㄱ자형	口자형	田자형
 용인 중동 유적 1호	 용인 중동 유적 2호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 15-1호	 용인 고림동 유적 1,2호

내부시설이나 구들 등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주거의 용도로 봐도 무방하며 임시적인 거주 목적 보다는 상시거주의 형태라고 판단된다.

2. 형식별 공간적 분포범위

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각 형식들이 연구대상지 내에서 어떠한 공간범위 설정하며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표10, 그림10>.

A1식은 수원·안성·용인·오산·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내 전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조사·보고된 유구의 비율도 고르게 확인되는 양상이다.

A2식은 A1식과 마찬가지로 수원·오산·평택·화성 등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 다만, 평택지역에서 조사·보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B1식은 수원·오산·용인·평택·화성 등에서 분포하고 있다. 조사·보고된 유구의 비율은 주로 경기남부지역의 중앙부인 평택과 오산을 중심으로 높게 확인된다.

B2식은 수원·시흥·평택·화성 등에서 분포하고 있다. 조사·보고된 비율에 있어 경기남부지역의 중앙부인 오산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시흥, 화성, 평택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동쪽부근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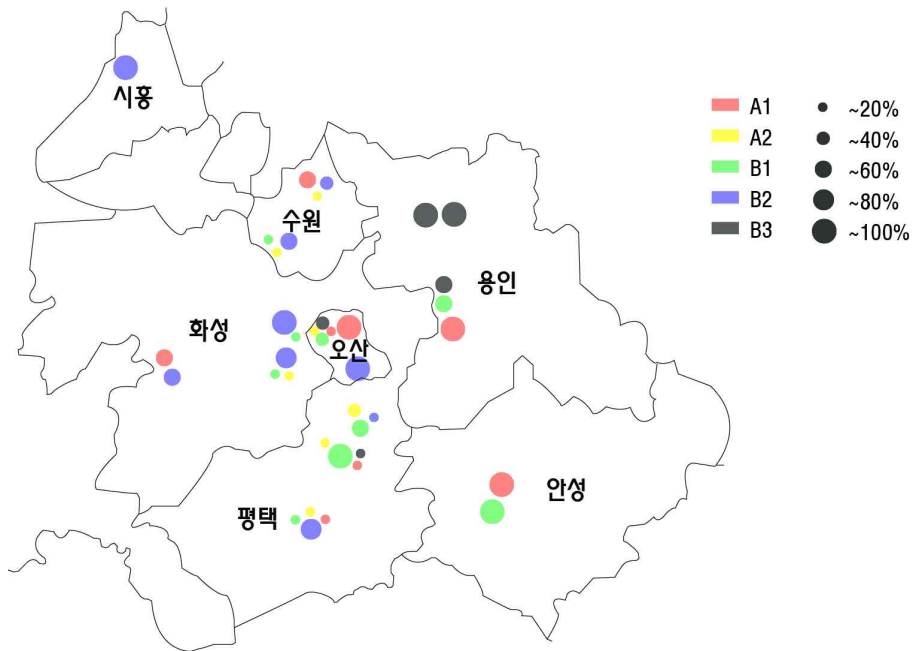
B3식은 오산·용인·평택 등에서 분포하고 있다. 조사·보고된 비율은 중앙부인 오산을 포함하여 주로 동쪽부근인 용인에서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면 A1식은 전체지역에 고르게 확인되며 A2식은 평택 지역에서 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B1식은 경기남부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평택과 오산의 비율이 높으며 B2식 서쪽에 위치한 시흥과 화성, 평택에서 주로 조성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B3식은 중앙부인 오산을 포함하여 동쪽에 위치한 용인에서 주로 확인된다.

<표 10> 연구대상지 내 유적별 형식 분포 수

순번	유적명 \ 형식별	A1	A2	B1	B2	B3	합계
1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	3	1		2		6
2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		1	1	3		5
3	시흥 장곡동 유적				16		16
4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2			2
5	안성 칠곡리 유적	3					3
6	오산 갈곶동 유적				2		2
7	오산 지곶동 유적	9					9
8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	3	3	8		9	23
9	용인 고림동 유적					2	2
10	용인 남사(아곡) 유적	1					1
11	용인 중동 유적					3	3
12	용인 완장리 유적			1		1	2
13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13	14	6		33
14	평택 고덕(서경) 유적	2	1	24		2	29

15	평택 옥길리 유적	1	1	1	5		8
16	화성 구문천리 유적		1	1	4		6
17	화성 남양동 유적	3			3		6
18	화성 향남 2지구			1	9		10



<그림 10> 연구대상지 내 형식별 공간분포도

3. 편년 및 단계설정

1) 편년

조선시대 지상주거지의 내부출토유물은 자기류, 도기류, 기와류, 토제품, 철기류, 석기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자기류를 제외한 유물은 편년 설정을 하기에는 연구가 미흡하거나 시기 폭이 커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기의 기년명이나 가마 출토품 등 상세하게 분석·연구가 진행된 자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⁶¹⁾. 자기를 통한 편년분석은 <그림 11>과 같다. 다만, 출토품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도기류가 단독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편년 연구자료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등을 부차적으로 활용하였다⁶²⁾.

A1형식은 상감 또는 인화 등 이른 기법의 분청사기가 백자와 공반되거나 죽절굽의 백자가 확인되며 형식 중 가장 빠른 조선 초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도면 16>. 분청사기와 백자가 공반되는 비율보다는 백자+죽절굽·태도받침의 비율이 높다<그림 11>. 14C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성행했던 주시기는 15C~16C사이로 판단된다<그림 12>.

A2형식은 백자+오목굽·모래받침이 출토된 주거지가 새롭게 등장한다. 전체적인 비율은 A1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분청사기가 백자와 공반되어 확인되는 예의 비율이 좀 더 낮아지는 편이다<그림 11>. 분청사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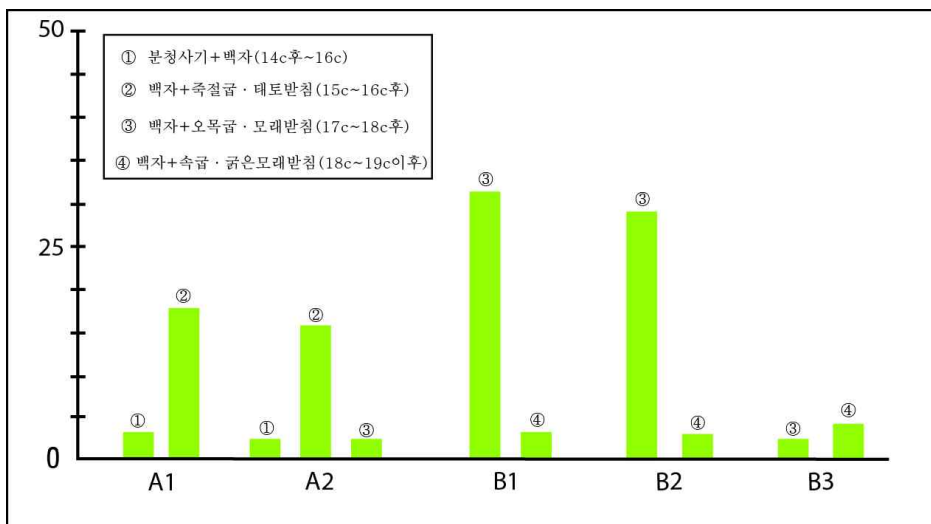
61) 姜敬淑, 『韓國陶磁史』, 2008, 일지사, pp. 324-331.

국립중앙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광주중앙관요』, pp. 322-339.

분청사기와 백자는 연구자들간에 세부적인 이견은 있으나 통상 분청사기(14C후~16C), 분청사기+백자가 공반되는 경우(15C~16C), 죽절굽이며 태도비집의 백자(15C~16C후), 오목굽이며 모래받침의 백자(17C~18C), 속굽이며 굽은 모래받침의 백자 또는 제기(18C~19C)로 편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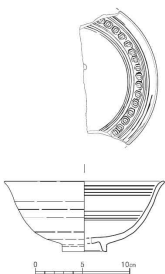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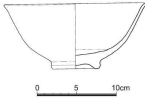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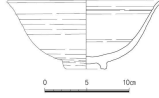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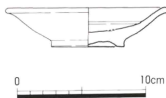
62) 김용호·이유진, 2014, 「중서부지역 조선시대 웅기가마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19.

_____, 2014, 「중서부지역 조선시대 웅기편년에 대한 연구」, 『과기고고』 20.



<그림 11> 형식별 백자출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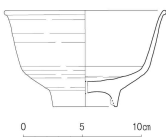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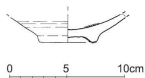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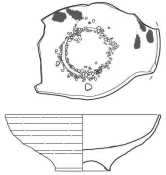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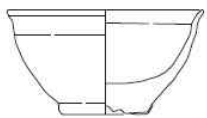
<도면 16> A형식 주요출토유물

A1		A2	
			
안성 칠곡리 유적 1-1지점 12호	화성 남양동 유적 1지점 7호	평택 방축라·여암라·궁리 유적 35지점 56호	화성 구문천리 유적 A-12호

A1형식에서 출토된 이른 기법이 아니라 주로 후기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나 기형이 확인된다<도면 16>. 15C 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성행했던 주시기는 15C~16C사이로 판단되며 일부 16C~17C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B1형식은 백자+죽절굽·태토받침이 출토된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고 백자+속굽·굽은 모래받침이 출토된 주거지가 등장한다<그림 11>. 백자+오목굽·모래받침이 압도적이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때 주 성행시기는 17C~18C사이이며 존속기간은 19C 이후까지 하한으로 삼을 수 있겠다<도면 17,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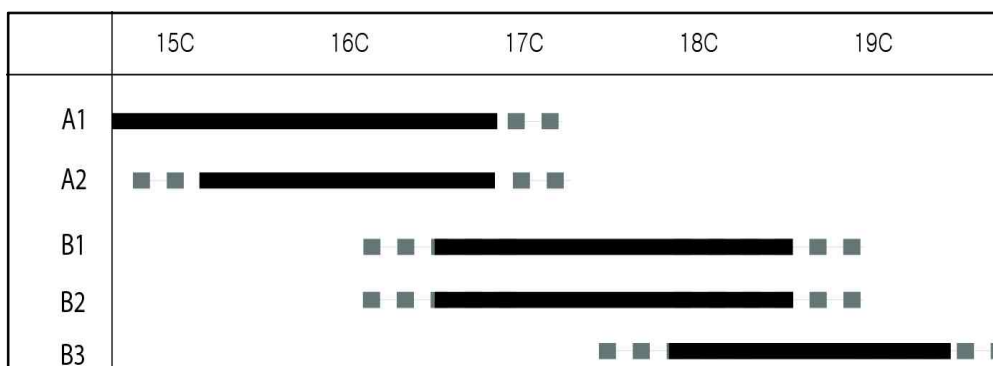
<도면 17> B형식 주요출토유물

B1		B2	
 평택 방축리·여암리·궁리 유적 33지점 25호	 안성 만정리 신기 유적 2지점 11호	 시흥 장곡동 유적 3구역 10호	 수원 호매실동·금곡동 유적 5지점 3호
B3			
 용인 중동 유적 2호		 용인 중동 유적 3호	

B2형식은 B1형식과 출토 백자류나 비율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도면 17, 그림 11>. 따라서 동 시기에 함께 성행했던 주거지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시간적인 변화보다는 지역별로 유행했던 형식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B2의 주 성행시기는 17C~18C사이이며 존속기간은 19C 이후까지이다<그림 12>.

B3형식은 백자+오목·모래받침의 주거지의 비율보다 백자+속굽·굽은 모래받침의 비율이 높아진다<그림 11>. 일부 주거지에서는 갈색유약의 용기가 확인되는데 중서부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속성이 18C 이후에 등장하며 19C이후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³⁾. 17C이후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 성행시기는 18C~19C로 판단된다<그림 12>.

이와 같은 편년자료를 종합해보면 각 형식간 존속기간은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그림 12> 연구대상 조선시대 지상주거지의 형식별 존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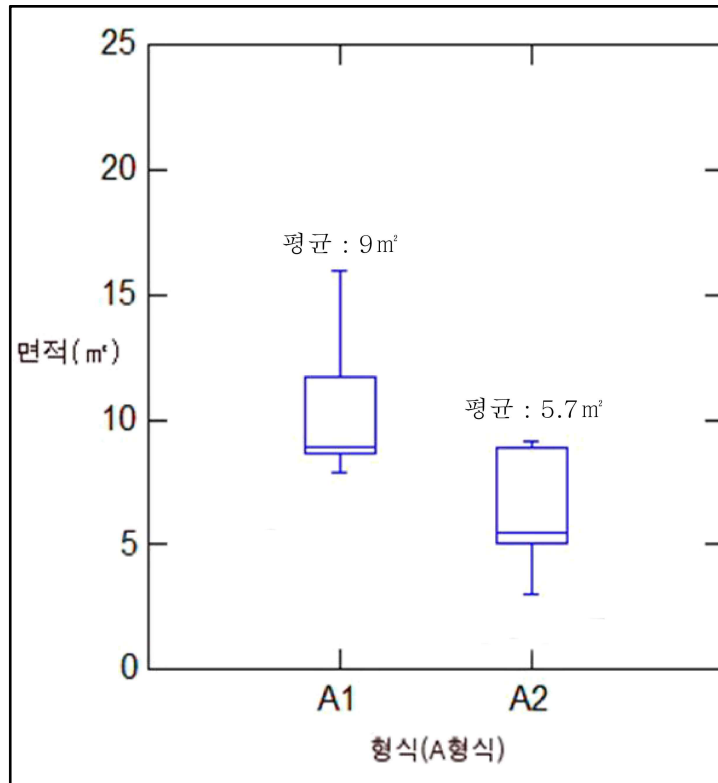
63) 김용호·이유진, 2014, 앞의 책.

2) 단계설정

① 1단계(전기 : 14C후반~16C후반)

1단계에 해당하는 형식은 A1·A2이며 14C후반~16C후반에 걸쳐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속성의 유물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입지는 완만한 구릉에 분포하는데 정상부에서 하단부까지 고르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구릉지는 배후의 구릉지가 겨울에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남동풍을 받아들여 통풍에 원활하다. 또한 주변에 구릉과 인접하고 있는 수계는 농업 및 생활용수의 공급에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⁶⁴⁾. 1단계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주로 화덕시설의 수혈주거지와 함께 노출되는데 지상주거지는 매우 소수만 확인되는 경향이다. 1단계는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되었으며 공간의 구분 없이 구들과 아궁이만 노출된다. 구들열 주재료는 돌을 이용하는 것과 기반층을 굴착하는 방식이 있다. 이 중 돌을 이용하는 방식이 약간 높게 나타나나 전체적인 비율은 대동소이하다. 1단계는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여러줄 고래를 조성한 형태가 특징으로, 조선시대 민가에서 보이는 구들의 초기 모델로 추정된다. 때문에 구들의 축조하는 방법에 있어 미숙한 점이 드러나는데 구들의 열과 독의 길이와 너비가 일정치 않고, 부재인 덮개돌 역시 판석이긴 하나 전체적인 두께가 일정치 않다. 사전에 정교하게 구획하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조성한 느낌이 강하다. 구들의 핵심은 화기를 골고루 전달하여 생활공간의 난방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열과 독의 간격이 일정치 않은 등 A형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A1식은 석재를 이용 하였고, A2식은 기반층을 굴착하되 구들의 너비를 세장하게 조성하거나 소규모로 조성하여 이를 극복한 모습이 관찰

64) 김용호·이유진, 2014, 앞의책, p. 49.



<그림 13> A형식 면적비율

된다. 때문에 A1식이 A2식에 비해 평균면적이 넓은 이유는 석재나 점토 등을 이용해 화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3>. 구들의 세부적인 구조는 대개 아궁이와 연도부는 각각 1개씩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궁이와 연도 전면에는 원형의 개자리가 확인되고 있다. 즉, 구들의 비정형화, 비규격화의 시기로 명명할 수 있다. A형식이 성행했던 전기에는 화덕시설의 수혈주거지가 일반적이는데 이보다 노동력 소모가 크고 재정적인 능력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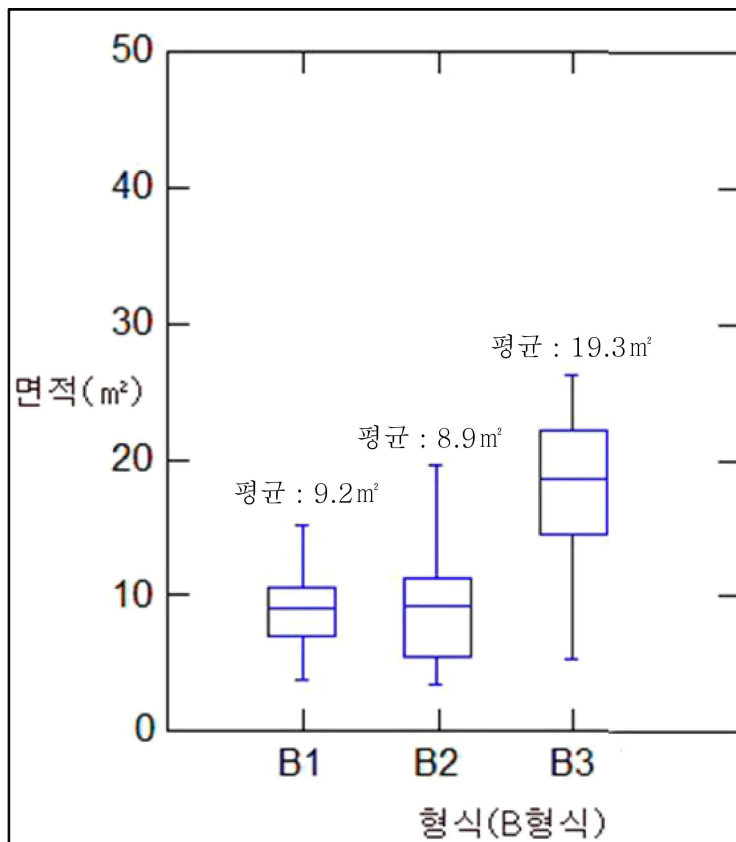
② 2단계(중·후기 : 16C후반~19C이후)

2단계에 해당하는 형식은 B1·B2·B3이며 16C후반~19C이후에 걸쳐 제작된 백자와 도기편 등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2단계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조성되었으며 공간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생활공간과 보조생활공간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공간의 구분은 평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단 또는 경사에 의한 주거지의 종단면형태에서도 나타난다. 입지는 1단계와 유사하나 구릉의 비고차는 적고 나지막하거나 평탄한 편이다. 구릉지는 1m 내외의 몇 개의 단을 설치하였으며, 단 아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풍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입지를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거나 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는 수혈주거지와 함께 노출되는 취락은 확인되지 않고 지상주거지만 밀집되어서 노출되는 경향이다. 구들은 불을 넣고 양질의 연료를 사용해서 높은 화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설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따라야 한다⁶⁵⁾. 전체적인 취락의 양상은 1단계에 비해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의 구들은 처음부터 구획하여 설계하듯 정교함이 드러나는 점이 특징이다. 부재 또한 두께가 일정하고 반듯하다. 1단계에 비해 발전된 방식으로 효율적인 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B1형식을 제외한 형식에서 구들 열이 늘어나고 면적이 점차 넓어지는 양상이며 기반층을 굴착하는 방식으로 정착된다. 주거의 폐기시 부재는 대부분 재활용을 위함으로 일부만 노출되거나 찾아볼 수 없다. 후기의 B3형식에서는 단순히 생활공간과 보조공간 이외에 ‘칸’에 의한 다양한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범위가 넓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14>.

65)김동욱, 『한국 건축의 역사』, 기문당, 2013, pp.173-174.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특징인 원형의 개자리와 단연도와 더불어 횡방향의 ‘一’자형 개자리와 다연도 구조가 등장하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1단계에서 2단계의 변화는 기후와 사회적인 정책, 신분제의 붕괴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2단계에 속한 주거지는 같은 형식간의 중복관계가 심하게 확인되는 편인데 거주 및 존속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B형식 면적비율

4. 취락유형 및 성격

본 장에서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상주거지가 속한 취락 중 비교적 양호한 취락을 중심으로 형식별 조합양상을 살펴보고 분류된 취락에 대한 성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수혈주거지와 함께 확인되는 취락과 지상주거지만 확인되나 형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취락, 마지막으로 같은 형식의 지상주거지만 단독으로 확인되는 취락 등이다.

1) 수혈주거지+A형식

수혈주거지와 함께 취락을 형성한 지상주거지의 형식은 A1 · A2식이 확인된다. 해당 취락유형을 지닌 유적은 용인 남사(아곡), 화성 남양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C후반~16C후반 조선시대 전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동일구릉 내 군집을 이루며 생활하는 양상이다. 수혈주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확인되며 지상주거는 밀집되어 한 곳에 집중해서 노출되고 있다.

취락의 성격은 문헌에 기록된 당시의 생활모습<표 11·12>과 고고자료<그림 15>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은 해당시기의 보편적인 서민들의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고, <표 12>는 신분과 재력이 있는 공경대부 즉 반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두 사료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점은 당시의 구들은 보편적인 난방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들은 반가에서도 겨우 1~2칸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노인이나 병자들에게 우선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시기의 수혈주거지와 함께 확인되는 지상주거지는 일반 주거지의 모습 보다는 노인, 병자들을 위한 특수

목적의 기능했을 가능성과 수혈주거에 비해 노동력, 조망권, 유물의 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신분 또는 재력 등에서 차등이 있을 수가 있다⁶⁸⁾.

<표 11> 조선전기 민가에 관한 사료

문헌	내용
金馬誌 ⁶⁶⁾	“이 지방에서는 이른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하여 머슴을 하나도 두지 못하며 따라서 나무를 하고 물을 길는 일도 몸소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兼奴上典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사는 집도 돼지 우리나 진배없다. 가운데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기둥에 의지하여 동그랗게 돌아가며 서까래를 놓고 그 위에 풀을 덮어 만든 것이다.”
東國輿地勝覽 ⁶⁷⁾	“細民들의 집에는 부뚜막과 구들이 없고 땅바닥에서 잔다.”

<표 12> 조선전기 반가에 관한 사료

문헌	내용
星湖僿說 ⁶⁹⁾	“전에 여러 노인들에게 들으니 약 100년 전에 공경대부와 부자들의 저택에도 따뜻한 구들이 한두 칸에 불과하여 노인과 병자들이 거처하고 나머지는 모두 침상 위에서 자고 거처했다. 마루방 안에는 병풍과 휘장을 둘러치고 두터운 자리를 깔아 각각 여러 자녀들의 방으로 삼았다. 그 구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말뚝으로 따뜻한 기운만을 대강 취했을 뿐이다.”
眉巖日記 ⁷⁰⁾	“집을 지으면서 객청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바닥이 마루로 된 객실 4칸 중 방 2칸, 서실 2칸을 두었고 객창 전체의 건물 중 서실에서만 온돌을 들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들의 주택 중 구들이 설치된 방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66) 《金馬誌》는 전라도 익산의 옛 이름으로 군수 남태보가 편찬한 전라도 익산시 읍지이다.

67) 《東國輿地勝覽》은 노사신, 양성지, 강희맹 등이 편찬한 지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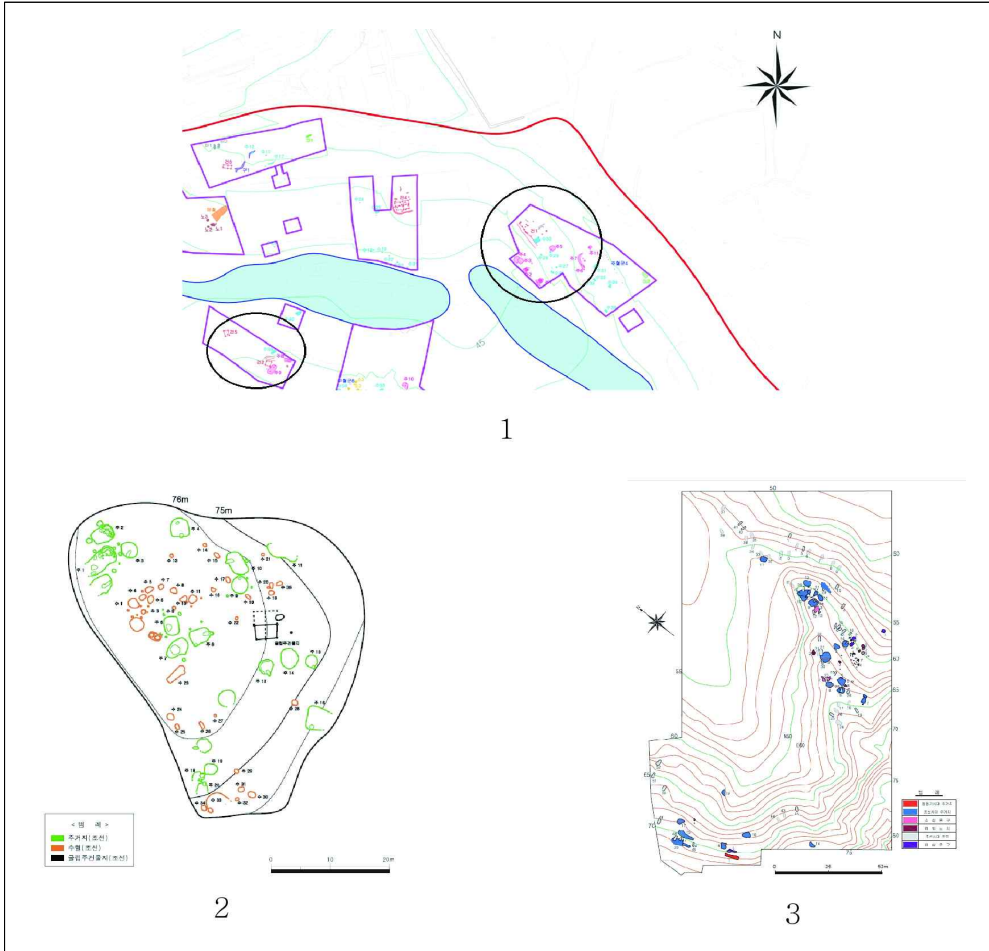
68) 해당시기의 지상주거는 수혈주거에 비해 양질의 자기가 주로 확인되며 백자장군, 철제보습 등 유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입지도 대부분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도 우수한 편이다.

69) 《星湖僿說》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익이 책을 읽다가 흥미있는 사실을 기록해 둔 글이다.

70) 《眉巖日記》는 유희춘이 1567년 10월부터 1577년 5월까지 약 11년에 걸쳐 쓴 일기다.

조선시대 취락 유적은 묘막지, 공방시설, 임시거주 등의 특수목적과 단순히 농경이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수혈주거지와 함께 확인되는 지상주거지는 구릉부에 대개 15~30동정도로 중·소규모 밀집되어서 확인되는 양상이다. 다수의 유적 주거지 내부에서 대부분 일상기명들이 출토되었고 특히, 용인(남사)아곡 유적의 보습이나 철부 등이 확인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농경취락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해당유형의 지상주거의 안에 살던 사람들은 <표 11>의 사료를 참고해보면 금마지의 경우 양반이,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일반백성이 기록되어 있다. 사료만 따르자면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경제력 차이에 의해 주거의 조성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생활면에서 전체적으로 넉넉한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서민이나 하위계층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5> 수혈주거지+ 지상주거지 복합취락

(1. 평택 고덕 유적 1-2차부지(서경), 2. 용인 남사(아곡) 유적, 3. 화성 남양동 유적)

2) B형식

취락 내 타 형식의 지상주거지가 함께 확인되는 형식은 B1 · B2 · B3식이 확인된다. 해당 취락유형을 지닌 유적은 평택 고덕(서경), 오산 탑동·두곡동, 용인 완장리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취락유형이 확인되는 시기는 중·후기에 해당하는데 B1형식이나 B2형식을 지닌 다수의 주거지 사이에 B3형식이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취락 내의 주거지는 취·난방시설은 모두 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혈주거지+지상주거지가 확인되는 취락유형에서 벗어나 16C 이후 구들의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구들이 보급되면서 주거 내 공간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하위계층의 수혈주거가 지상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시기의 문헌<표 13>을 살펴보면 인조 때 김자점의 건의로 구들을 설치하기 시작하며 전란과 저온화 등을 말미암아 보급 및 확산은 16C 이후 궁궐~민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 대중화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¹⁾.

전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대표적이며 소실된 건물을 복원 하거나 민가를 신축하면서, 저온화는 17C에 이르러 두드러졌는데 이상기후를 동반하며 연평균기온이 1~1.5℃ 정도 낮은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됨에 따라 구들이 채택되면서 정착되었을 것이다⁷²⁾.

취락은 수혈주거지+지상주거지 유형과 마찬가지로 공방지나 묘막지 등의 특수 목적을 지닌 취락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생활공간을 위한 취락일 가능성이 높다.

71) 김성태·이병훈, 2004, 앞의 책, pp. 66-67.

이태준, 1988, 『문장강화』, 창작과 비평사, pp. 265-266.

한국고문서학회, 2006, 『조선생활사 3』, 역사비평사, pp. 293-295.

72) 김연옥, 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대출판부, pp. 503-517.

<표 13> 조선중·후기 구들보급에 관한 사료

문헌	내용
靑城雜記 ⁷³⁾	...“인조 때 도성의 네 산에 솔잎이 너무 쌓여 여러 차례 산불이 나서 임금 이 근심하자, 김자점이 이에 오부(五部)의 집들에 명해 구들을 설치하게 하 자고 청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솔잎을 처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 들이 모두 따뜻한 길 좋아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이 명령을 따라 얼마 안 가서 온 나라가 이를 설치하게 되었다...”
仁祖實錄 ⁷⁴⁾	...“사대부 집종들도 구들을 만들어 거처하는데 나인으로서 마루방에 거처해 서야 되겠는가.”...
沖庵集 ⁷⁵⁾	“백성들은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돌을 채운 뒤에 그 위에 구들바닥처 럼 흙을 바르고 말린 다음 거처로 삼는다.”

다만, 수혈주거지와 함께 확인되는 지상주거지가 특수성을 지닌 것처럼 별도의 지상주거지가 복합적으로 확인되는 취락에서도 일부만 확인되는 B3형식은 위치나 규모, 노동력 등에서 차이를 보여 그 쓰임새가 공동을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16·17>.

이들의 생활상이나 계층에 있어서 문헌을 참고해보면 수혈주거지와 함께 확인되는 지상주거지의 유형과 같이 그리 넉넉한 삶을 살았던 기록이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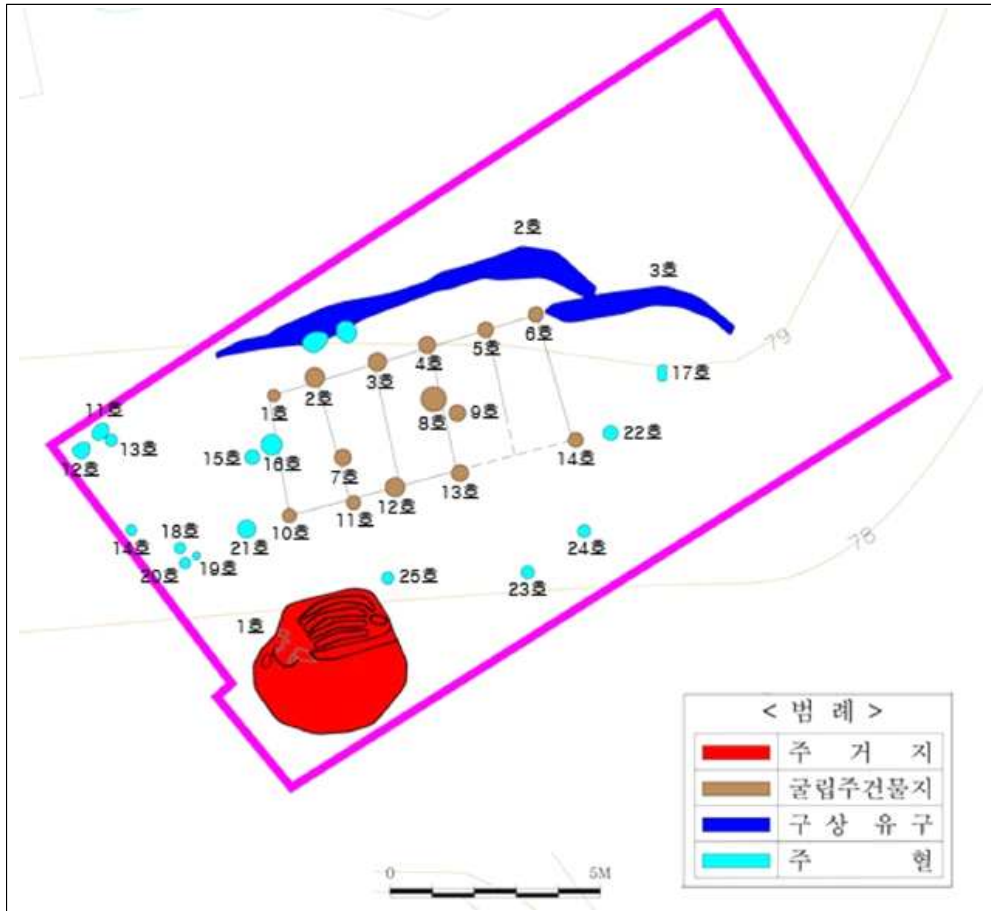
73) 《靑城雜記》는 조선 중·후기의 학자인 성대중이 편찬한 잡록집이다.

74) 《仁祖實錄》(卷5, 2年 3月)

75) 《沖庵集》은 김정이 제주도 유배생활에서 체험한 풍토와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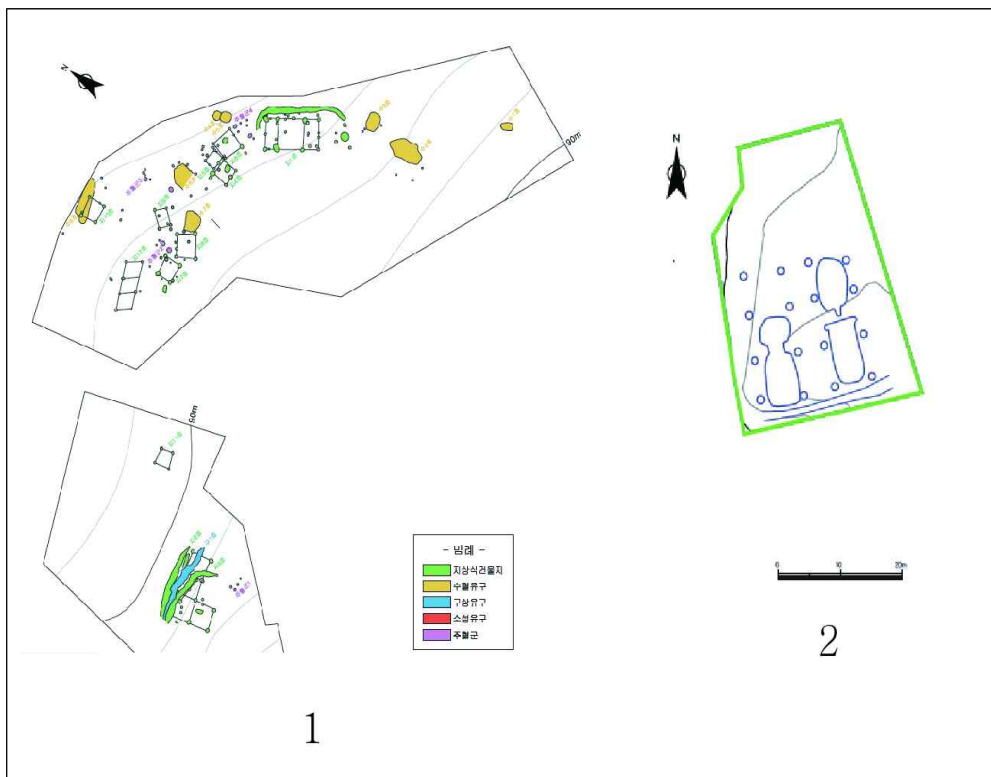
<그림 16>B형식 취락
(평택 고덕(서경) 7지점)



<그림 17>B형식 취락
(용인 완장리 유적)

3) B3형식

지상주거지가 단독으로 확인되는 취락의 형식은 B3식이 주로 확인된다. 해당 취락유형을 지닌 유적은 용인 중동, 오산 탑동·두곡동, 용인 고림동이 대표적이다. B3식은 굴립주를 이용하여 조성한 주거가 특징으로, 타 취락유형과 다르게 구릉 정상부나 상단부에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강하다<그림 18>.



<그림 18> 지상주거지 단독취락
(1. 용인 중동 유적, 2. 용인 고림동 유적)

굴림주를 이용하여 칸으로 구분짓게 되는 이유⁷⁶⁾는 조선시대 후기 신분제가 점차 무너지는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타 성장한 하위계층 즉, 부농들이 상류주거문화를 흡수 또는 모방하여 새로이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⁷⁷⁾. 따라서 취락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양반들의 생활상을 본떠 영위하는 비교적 재력을 지닌 계층의 일반 가옥으로 볼 수 있다.

경기남부지역에서 보고된 B3식의 구조를 근·현대 민속자료⁷⁸⁾와 결부시켜 대입해보면 <도면 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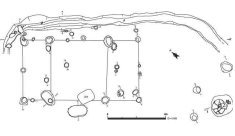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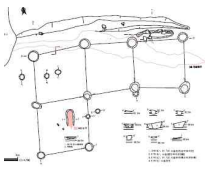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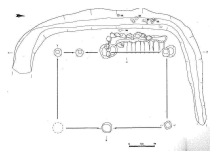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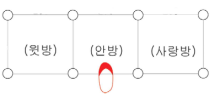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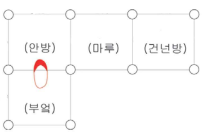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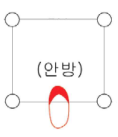
대표적인 ‘一’자형인 용인 중동 유적의 1호 주거지는 좌측부터 윗방-안방-사랑방의 구조를 지니고 안방을 향하도록 구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역ㄱ’자형인 용인 중동 유적의 2호 주거지는 좌측 칸은 부엌과 안방이 설치되고 중앙에 마루와 우측으로 건너방의 구조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측면 1칸 구조인 오산 탐동·두곡동 유적의 15-1호 주거지는 안방의 단독구조나 추가적으로 부엌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76) 윤원태(1998: 144)는 서민 주택은 채(棟)의 분화보다 간(間)의 분화로 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 구성은 상류 주택처럼 평면구성이 지방별로 특색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이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서민 주택을 지방별로 그 평면을 분류해 보면 남부지방형(경상도, 전라남도 일부), 서부지방형(전라도, 충청도 일부), 중부지방형(경기도, 강원도 일부), 북부지방형(함경도, 평안도), 제주지방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집의 형태는 一자형(남부, 서부, 제주형)과 ㄱ자형, ㄷ자형(중부형), ㄹ자형(강원산간, 북부형)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집은 대개 부엌, 방, 마루의 3공간이 평면구성의 기본요소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77) 박형진·이종석 2013, 「19C 경기지역 부농주거의 공간적 특성에 나타난 근대적 경향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호, pp. 183-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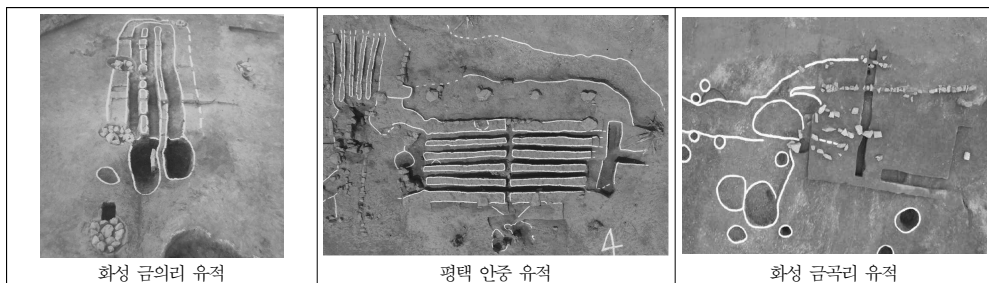
78) 민속학적으로 각 칸의 명칭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안방 : 집 안채에 부엌이 딸린 방, 윗방 : 부엌 아궁이가 딸린 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있는 방, 건너방 : 안방에서 대청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방, 사랑방 : 대문 가까이 방, 마루 : 건물 내에 지면보다 높게 널빤지 등의 재료를 편평하게 깔아 사람이 앉거나 보행하도록 만든 곳.

-자형	ㄱ자형	ㅁ자형
 용인 중동 유적 1호	 용인 중동 유적 2호	 오산 탑동·두곡동 유적 15-1호
		

<도면 18>경기 남부지역 B3식 공간구성 배치도(황대일·최수형 2010 수정후 삼입)

이외에 본고에서는 범주에 어긋나 포함하지 않았지만 민가와 상당부분 유사한 건물이 경기남부지역 곳곳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그림 19>. 이들의 특징은 구들의 조성방법이나 형태 등은 앞서 살펴본 민가 유사하나 기둥의 자리가 초석식에 해당하고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입지나 지역적 특징을 검토하면서 살펴봐야 하지만 주로 객사나 공동시설 등의 특수목적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9>경기남부지역 조선시대 특수목적 주거

V. 맺음말

조선시대 지상주거는 2000년대 이후 이미 많은 수의 유적에서 보고되었으나 개체 수가 적고 조사자 또는 보고자가 주거지의 구조를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해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경기남부 지역 유적현황에 대해 정리 한 후, 시기변화가 간취되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도출되는 특징을 토대로 각 형식간 편년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계 설정을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취락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지 내 조선시대 지상주거의 형식은 공간의 쓰임새에 따라 2가지로 대별되며 구들열의 부재, 평면형태 등으로 5가지로 세분된다.

A형식은 공간일체형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비롯하여 종단면형태에서 경사 또는 단에 의한 별도의 공간적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A1식과 A2식의 차이는 구들열의 부재에 따라 결정되는데 A1식은 석재를, A2식은 기반층을 이용하였다. A형식의 주 시기는 출토유물이나 자연과학분석결과에 따라 14C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6후반까지 존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B형식은 공간분리형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종단면형태에서 주생활공간과 보조생활공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B형식은 평면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B1식은 평면형태는 ‘日’자형을 띠며 B2형식은 ‘ㄴ’자형을, B3식은 ‘칸’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B형식의 주 시기는 16C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하며 19C이후 근대까지 폭 넓게 확인된다.

단계설정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조선시대 14C후반~16C후반에 걸쳐 조성된 주거지로, 전기에 해당하며 구릉의 정상부부터 하단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지상주거가 수혈주거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유구의 조망권, 주거를 조성함에 드는 노동력, 주거지 내부의 유물의 질적차이 등

이 반영되어 신분 또는 재력, 나이 등에서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구조는 구들이 확인되는 생활공간과 연소부인 아궁이만 노출되는 정도이며 구들 내부에는 원형의 개자리와 단연도가 일반적이다. 구들을 설치함에 미숙함이 드러나 석재나 규모를 적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1단계에 해당하는 형식은 A형식이며 대표적인 유적은 용인 남사(아곡), 화성 남양동 등이 있다.

2단계는 조선시대 16C 후반~19C 이후에 걸쳐 조성된 주거지로, 중·후기에 해당한다. 입지는 1단계와 유사하나 별도의 토목공사나 공간을 점유하여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해당시기의 지상주거지는 구들이 매우 정교하게 설치되며 1단계에서 볼 수 없었던 횡방향의 개자리와 다연도 구조가 등장한다. 또한 주거지의 면적은 넓어짐에 따라 주생활공간 이외에 별도의 공간이 다양하게 확인된다. 2단계에 해당하는 형식은 B형식이며 대표적인 유적은 오산 탑동·두곡동, 용인 고림동 등이 있다.

취락의 유형은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 수혈주거지+A형식, B형식 공존, B3형식 단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취락은 크게 취·난방시설의 변화에 따라 구조적변화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되며 더불어 전란, 기후(저온화), 신분제의 붕괴에 따라 시기적으로 선호하는 취락유형이 확인되었다.

필자는 조선시대 전기 지상주거지가 차츰 발전을 거듭하여 근·현대의 재래가옥까지 계승·정착되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다만, 아직 걸음마를 댄 시점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연구의 논리나 전개과정에서 비약과 단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기남부지역에서 한정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후 이를 보완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필자도 이를 발판삼아 심도있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李相國集全集』
『淸聲雜記』
『星湖僊說』

2. 보고서

- 京畿文化財研究院, 2009, 『安城 萬井里 신기遺蹟』.
_____, 2009, 『華城 南陽洞 遺蹟』.
_____, 2011, 『水源 好梅實洞·金谷洞 遺蹟』.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유적』
高麗文化財研究院, 2014, 『始興 長谷洞 遺蹟』.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烏山 紙串洞 遺蹟』.
_____, 2011, 『光教 新都市 文化遺蹟 V』.
_____, 2012, 『烏山 塔洞·斗谷洞 遺蹟』.
_____, 2016, 『평택 방축리·여염리·궁리 유적』.
_____, 2011, 『華城 錦依里 遺蹟』.
서경문화재연구원, 2011, 『용인 고림동 유적』. -부록-
_____, 2012, 『용인 중동 유적』.
_____, 2016, 『용인 남사(아곡) 유적』.
_____, 2016,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경계부연결도로 내 유적 제10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_____, 2014, 『화성 금곡리 유적』.
중동문화재연구원, 2012, 『용인 완장리 유적』.
中部考古學研究所, 2012, 『安城 七谷里 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2006, 『烏山 葛串洞 遺蹟』.
_____, 2006, 『華城 求文川里 遺蹟』.
_____, 2008, 『平澤 玉吉里 遺蹟』.

中原文化財研究院, 2011, 『화성 향남2지구 유적 I』.

3. 단행본

국립중앙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광주중앙관요』.

강경숙, 2007, 『한국도자사의 연구』. 서울:시공사.

김연옥, 1985, 『한국의 기후와 문화』, 서울:이화여대출판부.

이태준, 1988, 『문장강화』, 서울:창작과 비평사.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서울:민족문화사.

윤원태, 1998, 『한국의 전통 초가』, 서울:재원.

윤원태, 2009, 『전통민가의 주거생활사 연구』, 서울:민속원.

주남철, 2000, 『한국 건축사』,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한국고문서학회, 2006, 『조선생활사 3』. 서울:역사비평사.

4. 논문

김지혜, 2013, 「조선시대 경기도지역 수혈주거지에 대한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호·이유진, 2014a, 「경기지역 조선시대 民家の 조성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고고학』 13:35-67.

_____, 2014b, 「중서부지역 조선시대 옹기가마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19: 193-233.

_____, 2014c, 「중서부지역 조선시대 옹기편년에 대한 연구」, 『과기고고』 20: 93-109.

_____, 2015, 「경기서남부지역 조선시대 토광묘에 조성방식과 부장양상에 대한 연구」, 『과기고고』 21: 95-117.

김현주, 2014, 「화성 남양동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한재, 2007, 「조선시대 경기지방의 수혈주거지」, 상명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형진, 이종석 2013, 「19C 경기지역 부농주거의 공간적 특성에 나타난 근대적 경향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189-192.

배덕환, 2005, 「선사·고대의 지상식건물」, 『동아문화』, 1:1-39.

손성진, 2013, 「조선시대 강원지역 움집유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

위 논문.

오준혁, 2008,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검토」,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승규, 2011, 「중부지방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성격검토」,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경복·전경아, 2004, 「조선시대 움집과 그 안에 살던 사람들」, 『백산학보』 69: 231-271.

이경복, 2007, 「조선시대 움집과 온돌의 도입」, 『백산학보』 79:253-279.

_____, 2008, 「조선시대 움집에 설치된 온돌의 조사법 일사례」, 『호서고고학』 18: 166-191.

임영호·정여선, 2007,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3:122-174.

황대일·최수형, 2010, 「지면식 지상건물지의 공간구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8:127-154.

황대일, 2010, 「강원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구조와 지역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 『고고학』 11-2:129-157.

_____, 2011, 「울산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一考察」, 경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_____, 2012, 「경북지역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구조 검토」, 『과기고고』 18:47-68.

<부록> 형식별 유구제원표

A1형식

연번	형식	유적명	유구명	입지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	A1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	9지점 36호	구룡사면	장방형	390	233	14	9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철기편
2	A1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	9지점 40호	구룡사면	장방형	225	(221)	16	-	도기편, 백자편
3	A1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	14지점 1호	구룡사면	장방형	407	260	10	10.5	도기편, 백자편
4	A1	안성 칠곡리 유적	1-1지점 1호	구룡사면	추정 장방형	(690)	(680)	30	-	도기편
5	A1	안성 칠곡리 유적	1-1지점 12호	구룡사면	장방형	387	315	83	12.1	분청사기편, 도기편
6	A1	안성 칠곡리 유적	2-1지점 1호	구룡사면	추정 장방형	330	(138)	44	-	도기편
7	A1	오산 자곶동	1지점 32호	구룡사면	장방형	(299)	(177)	29	-	기와편, 철기편
8	A1	오산 자곶동	1지점 40호	구룡사면	장방형	319	244	89	7.7	도기편, 기와편, 철기편
9	A1	오산 자곶동	1지점 42호	구룡사면	장방형	(383)	211	20	-	도기편, 흑유병, 기와편
10	A1	오산 자곶동	1지점 44호	구룡사면	장방형	407	178	23	7.2	기와편
11	A1	오산 자곶동	1지점 45호	구룡사면	장방형	(622)	(146)	34	-	도기편, 기와편
12	A1	오산 자곶동	1지점 63호	구룡사면	장방형	(466)	301	40	-	-

13	A1	오산 지곶동	1지점 66호	구룡사면	장방형	(635)	(280)	39	-	도기편, 백자편
14	A1	오산 지곶동	1지점 67호	구룡사면	장방형	(392)	(133)	7	-	승령중보
15	A1	오산 지곶동	1지점 68호	구룡사면	장방형	422	167	32	7	기와편
16	A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12호	구룡사면	장방형	310	215	19	6.6	백자편, 기와편
17	A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26호	구룡사면	세장방형	464	163	37	7.5	-
18	A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35호	구룡사면	중방형	577	294	27	16.9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철기편
19	A1	용인 남사(아곡)	4지점 1호	구룡 정상부	장방형	510	305	20	15.5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철기편 다량
20	A1	용인 남사(아곡)	4지점 2호	구룡 정상부	장방형	364	254	30	9.2	도기편, 백자편(백자 장군 포함), 기와편
21	A1	평택 고덕(서경)	1지점 2차 1호	구룡사면	장방형	306	242	29	7.4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22	A1	평택 고덕(서경)	1지점 2차 2호	구룡사면	장방형	380	204	56	7.7	도기편, 기와편
23	A1	평택 옥길리	나지역 5호	구룡사면	장방형	536	190	25	10.1	백자편
24	A1	화성 남양동	1지점 7호	구룡사면	장방형	564	212	30	11.9	분청사기편, 백자편, 철기편
25	A1	화성 남양동	4지점 22호	구룡사면	장방형	455	170	38	7.7	분청사기편, 백자편
26	A1	화성 남양동	4지점 26호	구룡사면	장방형	540	273	20	14.7	철기편, 숯돌

A2형식

연번	형식	유적명	유구명	입지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	A2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 수원	9지점 46호	구룡사면	장방형	304	260	26	7.9	백자편
2	A2	호매실동· 금곡동 유적	5지점9호	구룡사면	장방형	357	220	25	7.8	도기편
3	A2	오산 탑동· 두곡동	13지점 50호	구룡사면	세장방형	(535)	175	53	-	백자편
4	A2	오산 탑동· 두곡동	13지점 53호	구룡사면	장방형	(284)	(217)	10	-	도기편, 백자편
5	A2	오산 탑동· 두곡동	14지점 25호	구룡사면	세장방형	(437)	(180)	12	-	백자편
6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1지점 1호	구룡사면	장방형	216	95	16	2	-
7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1지점 4호	구룡사면	장방형	267	138	17	3.6	도기편
8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1지점 27호	구룡사면	장방형	362	111	41	4	백자편
9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3지점 55호	구룡사면	장방형	292	159	25	4.6	기와편
10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3지점 68호	구룡사면	장방형	214	187	17	4	기와편
11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3지점 79호	구룡사면	장방형	392	90	22	3.5	도기편
12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3지점 80호	구룡사면	장방형	426	104	21	4.4	기와편

13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5지점 10호	구룡사면	장방형	288	143	21	4.1	기와편
14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5지점 11호	구룡사면	세장방형	521	156	21	8.1	백자편, 기와편
15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5지점 16호	구룡사면	장방형	298	138	21	4.1	-
16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5지점 26호	구룡사면	세장방형	198	160	21	7.9	-
17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5지점 45호	구룡사면	장방형	208	115	21	2.3	철기편
18	A2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5지점 56호	구룡사면	장방형	288	156	32	4.4	분청사기편, 기와편
19	A2	평택 고덕(서경)	1지점 2차 8호	구룡 사면	장방형	388	176	27	5.9	기와편
20	A2	평택 옥길리	가지역 1호	구룡사면	장방형	514	412	75	21.1	도기편
21	A2	화성 구문현리	가지역 12호	구룡 정상부	장방형	297	155	20	4.6	도기편, 백자편

B1형식

연번	형식	유적명	유구명	입지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	B1	수원 호매실동· 금곡동 유적	5지점 12호	구룡사면	‘日’자	494	237	64	11.7	자기편
2	B1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2지점 나지역 10호	구룡사면	‘日’자	400	245	60	9.8	백자병

3	B1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2지점 나구역 11호	구룡사면	‘日’자	413	228	47	9.4	백자편, 도기편, 철제품
4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2지점 8호	구룡사면	‘日’자	414	214	20	8.8	도기편
5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1호	구룡사면	‘日’자	358	277	20	9.9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6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9호	구룡사면	‘日’자	520	291	41	15.1	-
7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10호	구룡사면	‘日’자	(301)	135	39	-	-
8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17호	구룡사면	‘日’자	(404)	(302)	34	-	도기편, 백자편
9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18호	구룡사면	‘日’자	424	233	28	9.8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10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4지점 15호	구룡사면	‘日’자	460	288	27	13.2	도기편, 백자편, 숫돌
11	B1	오산 탑동 · 두곡동	14지점 16호	구룡사면	‘日’자	(344)	277	31	-	기와편, 청동시
12	B1	용인 완장리	3-2지점 1호	구룡사면	‘日’자	359	336	43	12	도기편, 기와편, 자기편
13	B1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1지점 12호	구룡사면	‘日’자	446	160	24	7.1	-
14	B1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1지점 15호	구룡사면	‘日’자	334	191	29	6.3	백자편, 기와편
15	B1	평택 방축리·여업 리·궁리	32지점 9호	구룡사면	‘日’자	408	149	32	6	-

16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12호	구룡사면	‘日’자	637	175	22	11.1	-
17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13호	구룡사면	‘日’자	597	162	27	9.6	백자편
18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14호	구룡사면	‘日’자	393	135	22	5.3	백자편
19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23호	구룡사면	‘日’자	291	133	33	3.8	도기편, 백자편
20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25호	구룡사면	‘日’자	535	156	24	8.3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21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31호	구룡사면	‘日’자	392	134	22	5.2	도기편
22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76호	구룡사면	‘日’자	462	309	15	14.2	-
23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74호	구룡사면	‘日’자	506	388	20	19.6	기와편
24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91호	구룡사면	‘日’자	309	164	15	5	-
25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94호	구룡사면	‘日’자	381	283	16	10	백자편
26	B1	평택 방축리·여업 라·공리	33지점 94호	구룡사면	‘日’자	349	261	29	9.1	기와편
27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4호	구룡사면	‘日’자	272	(144)	34	-	도기편, 백자편
28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5호	구룡사면	‘日’자	(660)	(286)	40	-	-
29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6호	구룡사면	‘日’자	272	168	38	4.5	-

30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7호	구룡사면	‘日’자	366	226	70	7.5	백자편, 도기편
31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8호	구룡사면	‘日’자	(240)	(140)	24	-	백자편, 도기편
32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9호	구룡사면	‘日’자	400	350	30	14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33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0호	구룡사면	‘日’자	(198)	(196)	19	-	백자편
34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1호	구룡사면	‘日’자	390	176	42	6.8	백자, 도기편
35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2호	구룡사면	‘日’자	380	254	26	9.6	백자편, 도기편
36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3호	구룡사면	‘日’자	(150)	124	14	-	미상석기
37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4호	구룡사면	‘日’자	(148)	(248)	26	-	-
38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5호	구룡사면	‘日’자	(230)	(226)	20	-	백자편, 도기편
39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6호	구룡사면	‘日’자	(150)	(84)	14	-	도기편
40	B1	평택 고덕(서경)	7-나지점 17호	구룡사면	‘日’자	(230)	(226)	20	-	백자편, 도기편
41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1호	구룡사면	‘日’자	444	370	24	16.4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42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2호	구룡사면	‘日’자	356	276	52	9.8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43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3호	구룡사면	‘日’자	(254)	174	21	-	-
44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7호	구룡사면	‘日’자	314	272	20	8.5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45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10호	구룡사면	‘日’자	(376)	(240)	38	-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46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14호	구룡사면	‘日’자	406	306	24	12.4	기와편, 백자편, 도기편
47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16호	구룡사면	‘日’자	376	256	64	9.6	백자편, 도기편
48	B1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17호	구룡사면	‘日’자	316	224	72	7	백자편, 도기편(솔뚜 껍)

49	B1	평택 고덕(서경)	32지점 5호	구룡사면	‘日’자	360	234	32	8.4	도기편
50	B1	평택 고덕(서경)	32지점 9호	구룡사면	‘日’자	388	222	62	8.6	백자편
51	B1	평택 옥길리	가지역 13호	구룡사면	‘日’자	340	265	30	9	-
52	B1	화성 구문환리	가지역 9호	구룡 정상부	‘日’자	362	195	62	7	백자편
53	B1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14호	구룡사면	‘日’자	320	236	13	7.5	-

B2형식

연번	형식	유적명	유구명	입지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	B2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	11지점 5호	구룡사면	‘ㄴ’자	(255)	354	31	-	백자편, 철화백자편
2	B2	광교 신도시 문화유적	11지점 6호	구룡사면	‘ㄴ’자	230	224	17	5.1	도기편, 백자편
3	B2	수원 호매실동· 금곡동 유적	5지점3호	구룡사면	‘ㄴ’자	345	326	39	11.2	백자편, 도기편
4	B2	수원 호매실동· 금곡동 유적	5지점4호	구룡사면	‘ㄴ’자	295	250	30	7.3	백자편, 도기편
5	B2	수원 호매실동· 금곡동 유적	5지점 14호	구룡사면	‘ㄴ’자	338	304	20	10.2	백자편

6	B2	시흥 장곡동	3구역 4호	충적지	‘몹’자	350	213	30	7.4	백자편, 도기편
7	B2	시흥 장곡동	3구역 5호	충적지	‘몹’자	410	340	30	13.9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8	B2	시흥 장곡동	3구역 6호	충적지	‘몹’자	475	280	20	13.3	백자편
9	B2	시흥 장곡동	3구역 8호	충적지	‘몹’자	583	235	28	13.7	백자편, 도기편
10	B2	시흥 장곡동	3구역 9호	충적지	‘몹’자	547	280	80	15.3	관옥
11	B2	시흥 장곡동	3구역 11호	충적지	‘몹’자	410	240	20	9.8	백자편, 도기편
12	B2	시흥 장곡동	3구역 13호	충적지	‘몹’자	408	228	20	9.3	백자편, 도기편
13	B2	시흥 장곡동	3구역 15호	충적지	‘몹’자	410	248	28	10.1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14	B2	시흥 장곡동	3구역 16호	충적지	‘몹’자	364	266	20	9.6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15	B2	시흥 장곡동	3구역 17호	충적지	‘몹’자	490	250	30	12.2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상평통보
16	B2	시흥 장곡동	3구역 18호	충적지	‘몹’자	320	240	30	7.6	백자편, 도기편
17	B2	시흥 장곡동	3구역 19호	충적지	‘몹’자	490	400	40	19.6	백자편, 도기편
18	B2	시흥 장곡동	3구역 22호	충적지	‘몹’자	485	333	40	16.1	백자편, 도기편

19	B2	시흥 장곡동	3구역 23호	충적지	‘몐’자	440	295	15	13	백자편, 도기편
20	B2	시흥 장곡동	3구역 25호	충적지	‘몐’자	316	194	15	6.1	백자편, 도기편
21	B2	시흥 장곡동	3구역 26호	충적지	‘몐’자	380	280	22	10.6	백자편, 도기편
22	B2	오산 갈곶동	1지구 10호	구릉사면	‘몐’자	366	286	20	10.4	백자편, 도기편
23	B2	오산 갈곶동	1지구 11호	구릉사면	‘몐’자	272	(122)	20	-	백자편, 도기편
24	B2	방축라·여업 라·공리 평택	33지점 30호	구릉사면	‘몐’자	365	168	25	6.1	-
25	B2	방축라·여업 라·공리 평택	33지점 1호	구릉사면	몐’자	247	197	29	4.8	백자편
26	B2	방축라·여업 라·공리 평택	33지점 2호	구릉사면	몐’자	239	148	45	3.5	-
27	B2	방축라·여업 라·공리 평택	33지점 3호	구릉사면	몐’자	349	138	23	4.8	기화편
28	B2	방축라·여업 라·공리 평택	33지점 15호	구릉사면	‘몐’자	290	133	36	3.8	도기편, 백자편
29	B2	방축라·여업 라·공리 평택	33지점 26호	구릉사면	‘몐’자	316	171	29	5.4	-
30	B2	평택 옥길리	가지역 2호	구릉사면	‘몐’자	270	200	33	5.4	-
31	B2	평택 옥길리	가지역 3호	구릉사면	‘몐’자	(190)	150	15	-	-
32	B2	평택 옥길리	가지역 4호	구릉사면	‘몐’자	280	(115)	26	-	기화편
33	B2	평택 옥길리	가지역 5호	구릉사면	‘몐’자	270	185	20	4.9	-
34	B2	평택 옥길리	가지역 6호	구릉사면	‘몐’자	250	(155)	10	-	도기편, 백자편
35	B2	화성 구문환리	가지역 3호	구릉 정상부	‘몐’자	336	202	30	6.7	-

36	B2	화성 구문천리	가지역 4호	구룡 정상부	‘몸’자	385	270	30	10.3	백자편
37	B2	화성 구문천리	가지역 10호	구룡 정상부	‘몸’자	371	248	72	9.2	-
38	B2	화성 구문천리	가지역 11호	구룡 정상부	‘몸’자	288	180	52	5.1	-
39	B2	화성 남양동	2지점 1호	구룡사면	‘몸’자	245	215	40	5.2	백자편
40	B2	화성 남양동	3지점 2호	구룡사면	‘몸’자	265	235	47	6.2	백자편, 자기편, 기화편
41	B2	화성 남양동	6지점 5호	구룡사면	‘몸’자	340	285	30	9.6	백자편, 기화편
42	B2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1호	구룡사면	‘몸’자	(460)	270	20	-	백자편, 철기편
43	B2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2호	구룡사면	장방형	355	340	24	12.7	백자편
44	B2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3호	구룡사면	‘몸’자	(200)	223	26	-	-
45	B2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5호	구룡사면	‘몸’자	307	190	30	5.8	백자편
46	B2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11호	구룡사면	‘몸’자	382	283	36	10.8	백자편, 도기편
47	B2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12호	구룡사면	‘몸’자	492	250	56	12.3	-
48	B2	화성 향남 2지구	1지점 13호	구룡사면	‘몸’자	310	225	28	6.9	백자편
49	B2	화성 향남 2지구	5지점 3호	구룡사면	‘몸’자	357	138	-	4.9	기화편, 철기편
50	B2	화성 향남 2지구	5지점 7호	구룡사면	‘몸’자	(240)	240	27	-	백자편, 기화편

B3형 식

연번	형식	유적명	유구명	입지	평면 형태	규모(cm)			면적 (㎡)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1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1지점 3호	구룡사면	‘칸’(1×?)	381	170	20	6.4	도기편, 철화백자편

2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2지점 11호	구룡사면	‘칸’(5×2)	1034	205	85	21.1	백자편, 도기편, 기와편
3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16호	구룡사면	‘칸’(2×3)	515	433	85	22.2	도기편, 기와편
4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20호	구룡사면	‘칸’(1×3)	589	252	85	14.8	옹기편, 기와편
5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43호	구룡사면	‘칸’(1×1)	565	215	20	12.1	도기편, 기와편, 철기편
6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3지점 46호	구룡사면	‘칸’(4×?)	972	(240)	50	-	도기편, 기와편
7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4지점 14호	구룡사면	‘칸’(1×1)	591	325	15	19.2	도기편, 백자편
8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4지점 17호	구룡사면	‘칸’(2×1)	726	555	50	40.4	도기편, 자기편, 기와편
9	B3	오산 탑동 · 두곡동	14지점 17호	구룡사면	‘칸’(2×1)	729	480	27	34.9	도기편, 백자편
10	B3	용인 고림동	1호	구룡 정상부	‘칸’(3×1)	808	192	20	15.5	백자편, 도기편,
11	B3	용인 고림동	2호	구룡 정상부	‘칸’(3×1)	772	204	14	14.4	기와편, 철기편
12	B3	용인 중동	1호	구룡사면	‘칸’(3×1)	840	240	54	20.6	도기편
13	B3	용인 중동	2호	구룡사면	‘칸’(3×2)	886	590	54	17.8	도기편, 기와편, 철기편
14	B3	용인 중동	3호	구룡사면	‘칸’(1×?)	(354)	-	20	-	자기편
15	B3	용인 완장리	3-2지점 1호	구룡사면	‘칸’(4×1)	326	165	54	5.3	-
16	B3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8호	구룡사면	‘칸’(3×1)	(588)	(300)	24	-	-
17	B3	평택 고덕(서경)	7-다지점 15호	구룡사면	‘칸’(3×1)	878	300	30	26.3	-

Study of the Structure and Transition Process of Above Ground Dwelling Structur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 Focused on Folk House Remains in South Gyeonggi Province -

Kim, Yong Ho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 Prof. Kang, Bong Won

(Abstract)

The above-ground dwelling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has already been reported in a large number of remains since the 2000s, but since there are fewer individuals, and an examiner or reporter cannot clearly recognize the structure of the dwelling. Therefore, the author summarized the status of remains in the South Gyeonggi Province in this paper and assessed the characteristics by which changes of the times are perceiv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drawn, this study attempted to chronicle each type and set up stages based on this. In addition, lastly,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wer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examin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bove-ground dwelling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the target place

of research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use of the space, which is subdivided into five types according to the member of heating under hypocaust and plane form.

Type A is a type integrated with the space, where no spatial division separated by the slope or column is found in the form of the longitudinal section including the plane form of the dwelling. The difference between Type A1 and Type A2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ember of heating under hypocaust, Type A1 used stone while Type A2 used a hard pan. It is judged that the main period of Type A began to appear in the late 14th century and continued to exist by the late 16th century according to the excavated relics or the result of a natural scientific analysis.

Type B is a type, separated from the space, and the division between main living space and secondary living space is clear in the plane form and longitudinal section form of dwelling. Type B is divided according to the plane form. It has various forms, e.g., Type B1 takes ‘日’-shaped planar form; Type B2 takes ‘呂’-shaped planar form; and Type B3 is divided by ‘room.’ The main period of Type B began to appear from the late 16th century and continued till the modern time since the 19th Century.

The stage is divided into 2 stages. Stage 1 is the early period, dwelling established the late 14th century through the late 16th century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evenly distributed from higher part to lower part of the hills. During this period, the above-ground dwelling exists with pit dwelling, and since the viewing area of the remains, the labor force put in to set up the dwelling, and the qualitative differences of the relics in the dwelling were reflected, it is judg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rank, wealth or age. It is judged that, for the structure of the dwelling, the living space in which a hypocaust is seen and the furnace, which is the combustion section are exposed, and in the hypocaust, there are mostly circular cavity and single flue. The inexperience in the

installation of the hypocaust would be supplemented with stone or the method of reducing the scale. The type coming under Stage 1 is Type A, and the representative relics include Namsa (Agok), Yongin and Namyang-dong, Hwaseong.

Stage 2 is the middle and late period, dwelling the late 16th Century and 19th Century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location is similar to that in Stage 1 but shows more advancement by separate public works or occupation of space. In above-ground dwelling during the period, the hypocaust is installed very exquisitely, and transverse cavity and multiple flue structures appear, which could not be seen in Stage 1. In addition, as the area of the dwelling becomes wider, various separate spaces are found, in addition to the main living space. The type coming under Stage 2 is Type B, and the representative relics include Tap-dong and Jigok-dong, Osan and Gorim-dong, Yongin.

The type of the settlement is divided into three types, i.e., Pit dwelling+Type A, Type B coexistence and Type B3 alone. These settlements are understood as the results of structural changes broadly according to changes in cooking and heating equipment, and in addition, according to war, climate (temperature lowering) and the collapse of the caste system, types of settlement preferred in each period were identified.